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

단위(€)

5,319억
681개

2,158억
524개

1,119억
10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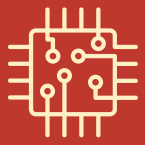
1,048억
185개

425억
40개

362억
39개

354억
63개

337억
50개


ICT 하드웨어
22.8%

ICT 소프트웨어
20.6%

제약 바이오
20.5%

자동차 및 부품
14.7%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정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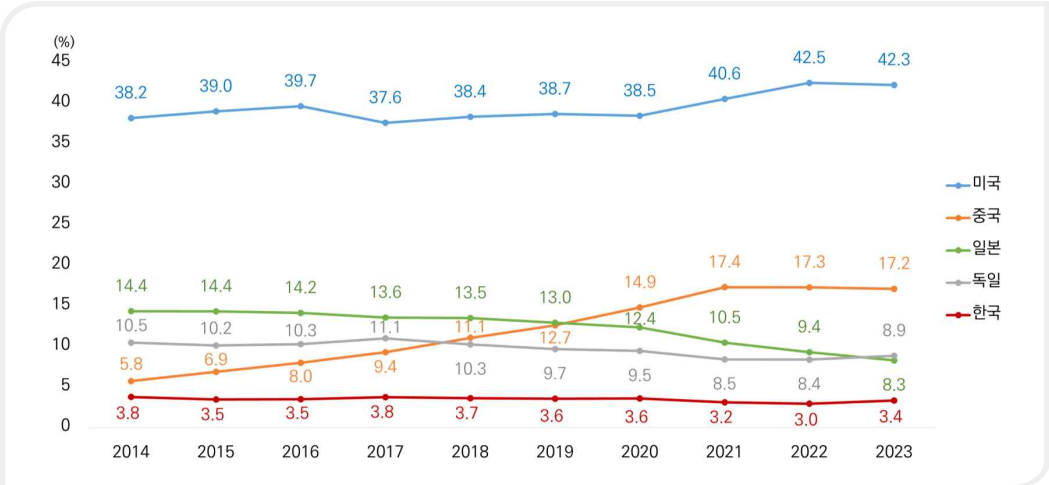
KISTEP

[요약]

- **상위 2,000개 기업 중 미국은 상위 기업 전체의 42.3%를 점유하며 압도적 선두를, 이어 중국이 점유율 17.23%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60조 7,208억원(425억€)을 투자해 3.4%를 점유하며 5위 차지**

- **최상위 10개 기업 중 6개는 미국 기업, 특히 5개*는 ICT 기업이며, 초거대 기업의 R&D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 3년간 R&D 투자 전체의 40% 이상을 점유** *(1위)Alphabet, (2위)Meta, (3위)Apple, (4위)Microsoft, (8위)Intel
  - 상위 50개 이내 미국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2021년 이후 50%를 넘어서며 상위 기업 R&D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81.9%를 점유하며 독주 양상이 뚜렷

- **상위 2,000개 이내 중국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경향이 있으며, 상위 50위 이내 기업 점유율은 약 9%로, 2023년 미·중 점유율은 63.2%**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 최근 10년간 주요국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 **삼성전자(7위)는 상위 10위권 내 유일한 기업으로 약 28조 3,397억 원(199억 €), 즉 한국 기업 R&D 전체의 약 46.7% 수준을 투자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12.5% 차지**

〈표 1〉 상위 1,000위 이내 한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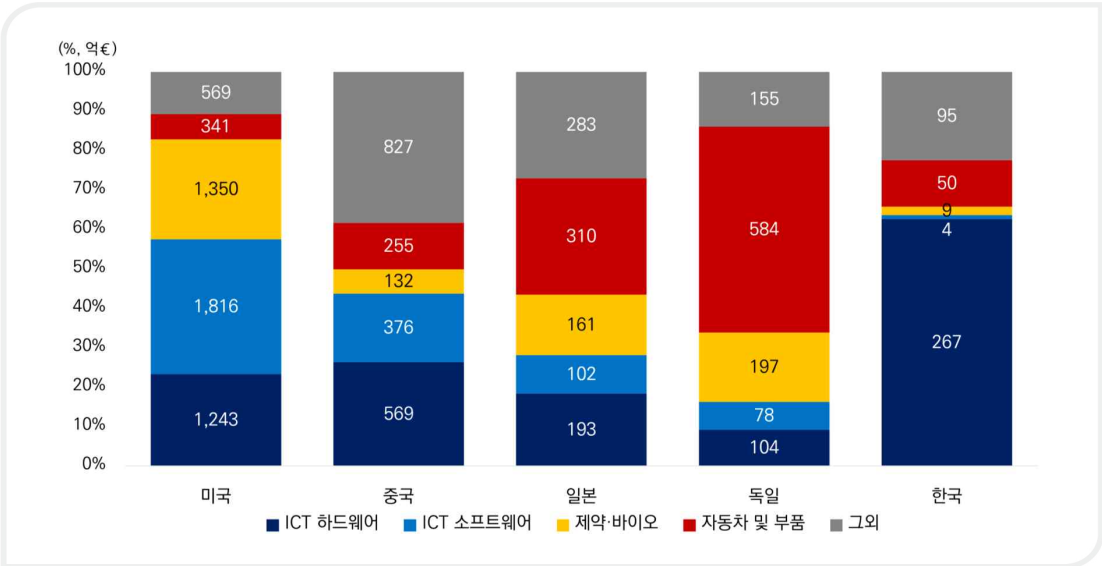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R&D 투자액	증가율	순위		기업명	R&D 투자액	증가율
7	(-)	삼성전자	19,890.5	14.4%	413	↓39	한국전력공사	503.6	-4.9%
42	↑17	SK하이닉스	5,307.6	69.3%	415	↓20	SK	501.3	2.9%
80	↓8	LG전자	2,814.9	8.7%	482	↓2	삼성전기	412.6	4.8%
81	↑10	현대자동차	2,785.6	19.6%	529	↓31	포스코	363.9	-2.8%
166	↑11	LG화학	1,427.1	15.9%	598	↑1	두산	322.0	9.3%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1,314.8	-	661	신규	SK이노베이션	292.8	-
210	↑9	현대모비스	1,117.7	16.8%	674	↑971	HD현대	288.2	233.5%
273	↓2	삼성SDI	797.6	6.2%	689	신규	두산에너빌리티	280.3	-
344	↑39	한화	631.9	22.8%	741	신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2.2	-
392	↑50	기아	548.3	26.0%	748	신규	SK텔레콤	259.3	-

주) 괄호 값은 '23년 환율(1유로 = 1,424.78원)을 적용한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한국 상위 기업 R&D 투자의 62.7%가 ICT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자동차 및 부품(11.8%), 기타(10.3%), 산업재(7.9%), 제약·바이오(2.1%) 순

- ICT 하드웨어 분야 대표적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있으며, 두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총 252억 유로로 해당 산업 R&D 투자 전체의 약 94.5% 차지
- 제약·바이오(2.1%)와 ICT 소프트웨어(1.0%)의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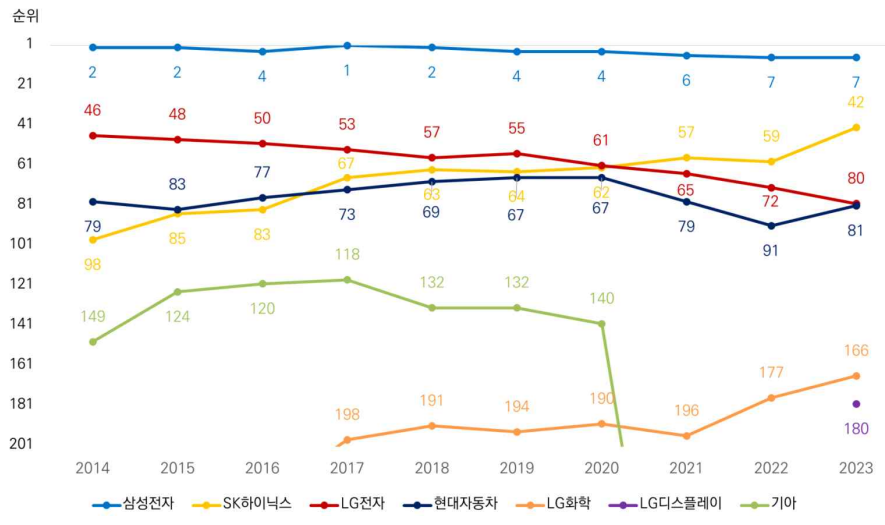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 주요국 산업별 R&D 투자 규모 및 비중(2023년)

현대자동차(81위), LG화학(166위), 한화(344위), 기아(392위) 등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순위 상승

-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최근 R&D 투자 규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19.6%, 15.9% 증가
- 기아는 2021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3년 투자 확대와 함께 일부 회복(+26%, 50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 최근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위 내 한국 기업의 순위 변화 추이(2014-2023년)

목 차

1. 개요 ····· 1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 2

3. 한국 현황 ····· 20

1.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 EC)는 2004년부터 매년 기업 및 산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이하 '스코어보드')」를 발간

- (목적) EU 및 세계 주요 기업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산업·지역별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R&D 투자 벤치마킹 및 과학·산업·정책 분야 핵심 자료로 활용
  ※ EU는 장기 경쟁력의 정책 목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 3%를 제시하였으며(Europe 2020, 2010), 후속 계획으로 총 955억 유로를 7년간(2021-2027) 투자 예정(Horizon Europe, 2019)
- (방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연구기관 Joint Research Center(JRC)는 매년 각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토대로 전 세계 기업의 국가·지역·산업별 R&D 투자 현황을 조사

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및 EU에 본사를 둔 R&D 투자 상위 800개 기업을 분석

- 2024년 발표된 스코어보드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변경으로 조사 대상 기업 수가 2,500개에서 2,000개로 감소하였으며, 점차 기존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밝힘(JRC, 2024)
  ※ 스코어보드 분석 대상 기업 수: ('11년) 1,500개 → ('12년) 2,000개 → ('13년) 2,500개 → ('23년*) 2,000개
  * 조사 대상 연도 기준, 즉 '23년인 경우, 조사 대상 연도가 2023년이며 2024년에 발표된 Scoreboard 내용에 해당
- 스코어보드 순위는 재무 보고서에 기재된 R&D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지역·산업별 R&D 현황 분석 결과 제공

스코어보드에서 분석하는 상위 기업 2,000개의 R&D 투자 규모는 전체 민간 R&D 지출(BES-R&D)의 약 85~90%를 차지(JRC, 2024)

이번 호에서는 「202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요 결과 및 원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2,000개와 한국 기업 현황을 분석[1)]

1) 본 보고서는 최신 패널데이터('25.2.20.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22년 이전 상위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이 분석하여 기존 KISTEP 보고서 및 원문 보고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2.1. 상위 2,000개 기업

2.1.1. 총괄

(투자 현황) 2023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은 총 40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1조 2,574억 유로*를 지출해 역대 최대 규모 기록 * 약 1,791.5조 원('23년 환율 기준, 1유로 = 1,424.78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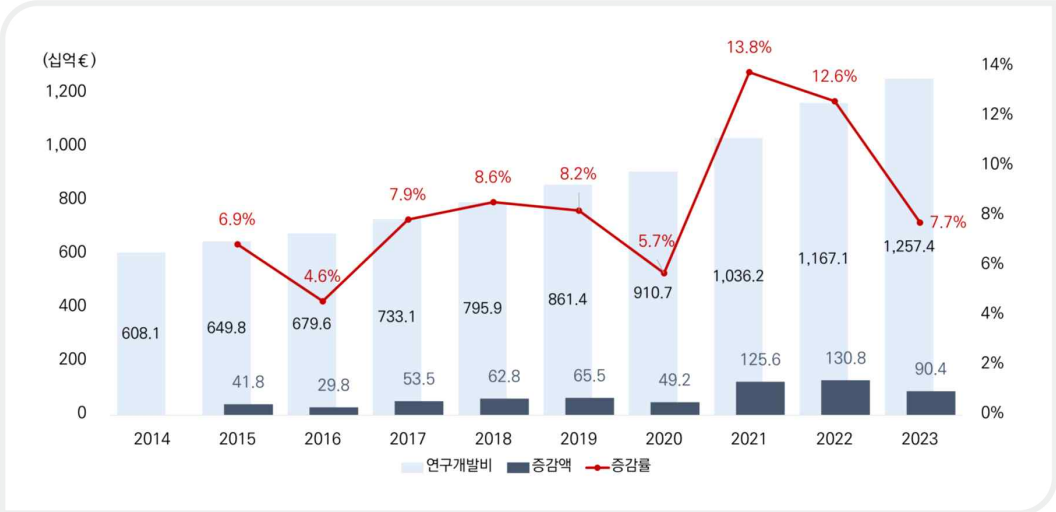
- 상위 기업은 총 40개국에 분포(EU 회원국 16개, 비회원국 24개)하며, 전년과 비교해 3개국이 제외되고 2개국이 신규 진입하여 총 1개 국가가 감소

  ※ 제외 국가는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총 3개), 신규 진입 국가는 콜롬비아, 태국(총 2개)

- 총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약 904억 유로 증가한 1조 2,574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증가율은 7.7%로 전년보다 낮고, 상위 50개 기업 성장률 또한 2022년 12.9%에서 2023년 6.5%로 크게 둔화

  - 2021년과 2022년의 높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R&D 투자의 강한 회복으로 인한 반등세로 보이며, 2023년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

  ※ 성장률 추이: ('17) 7.9% → ('18) 8.6% → ('19) 8.2% → ('20) 5.7% → ('21) 13.8% → ('22) 12.6% → ('23) 7.7%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4] 최근 10년간 상위 2,000개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014-2023년)

(R&D 집중도) 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최상위 기업이 글로벌 R&D를 주도하는 추세 지속

- 상위 10개 기업은 상위 50개 기업과 비교해 평균 약 2.3배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상위 50개 기업의 경우 상위 100개 기업과 비교하면 약 1.5배 수준

  ※ 구간별 R&D 평균 투자액: (상위 10개) 231억 €, (상위 50개) 101억 €, (상위 100개) 66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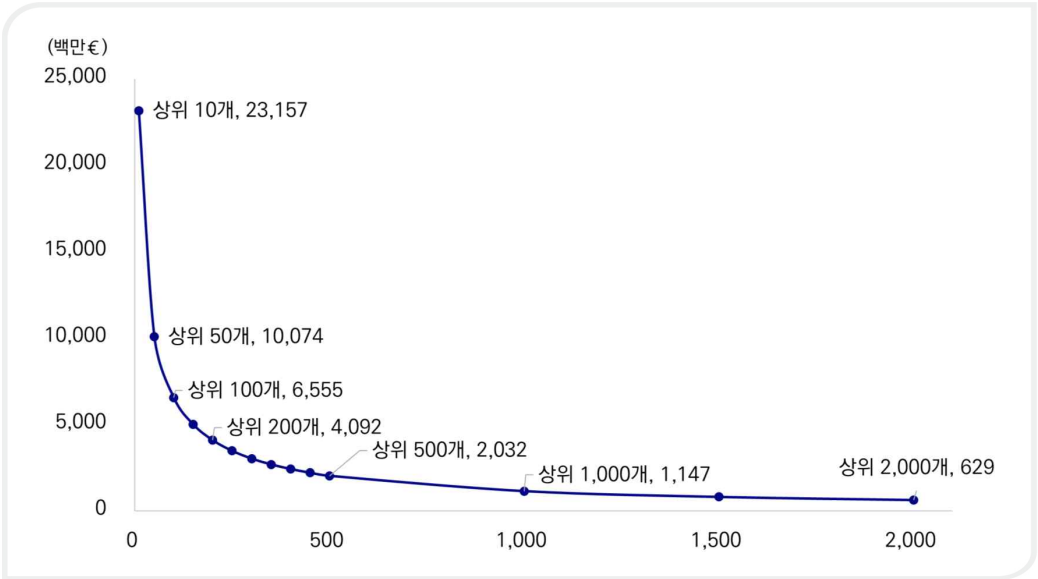
- 상위 50개 기업과 10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40.1%와 52.1% 수준을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기업에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집중

〈표 2〉 상위 기업 구간별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백만 €, %)

구분	R&D 투자액			점유율
	2023년	증가율	평균	
상위 10개	231,569	7.5	23,157	18.4
상위 50개	503,682	6.5	10,074	40.1
상위 100개	655,489	8.2	6,555	52.1
상위 2,000개	1,257,442	7.7	629	10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5] 상위 기업 구간별 평균 R&D 투자 현황(2023년)

2.1.2. 국가별 분석

(투자 현황) 미국 기업은 약 5,319억 유로(42.3%)를 투자해 전년에 이어 압도적 선두를, 이어 중국(2,158억 €), 독일(1,119억 €), 일본(1,048억 €), 한국(425억 €) 순으로 주요 7개국*에 전체의 85.6%가 집중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 미국은 전년과 비교해 약 5.9% 성장하며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고, 중국 또한 최근 성장세를 이어 전년 대비 9.6% 증가
- 독일과 일본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약 9.2%와 7.1%가 증가했으며, 점유율 기준 독일(8.9%)이 일본(8.3%)을 역전
- 한국의 R&D 투자액은 425.5억 유로로 일본의 40.6%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23.7% 증가해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 주요국 R&D 투자 증가율('23): 한국 23.7%, 중국 9.6%, 독일 9.2%, 프랑스 7.7%, 일본 7.1%, 영국 6.8%, 미국 5.9%

(기업 수) 미국이 681개(3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524개(26.2%), 일본 185개(9.3%), 독일 106개(5.3%), 한국 40개(2.0%)가 포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322개(16.1%)

- 미국은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기업 수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영국(63개) 순이며 한국은 40개 기업이 포함되어 10위 차지
- 전년과 비교하면 중국(17개↑)과 독일(11개↑)은 기업 수가 증가, 미국(5개↓), 일본(3개↓), 영국(7개↓)은 감소했으며 한국은 동일

※ 국가별 기업 수('22년): 미국 686개, 중국 507개, 일본 188개, 독일 95개, 영국 70개, 프랑스 49개, 한국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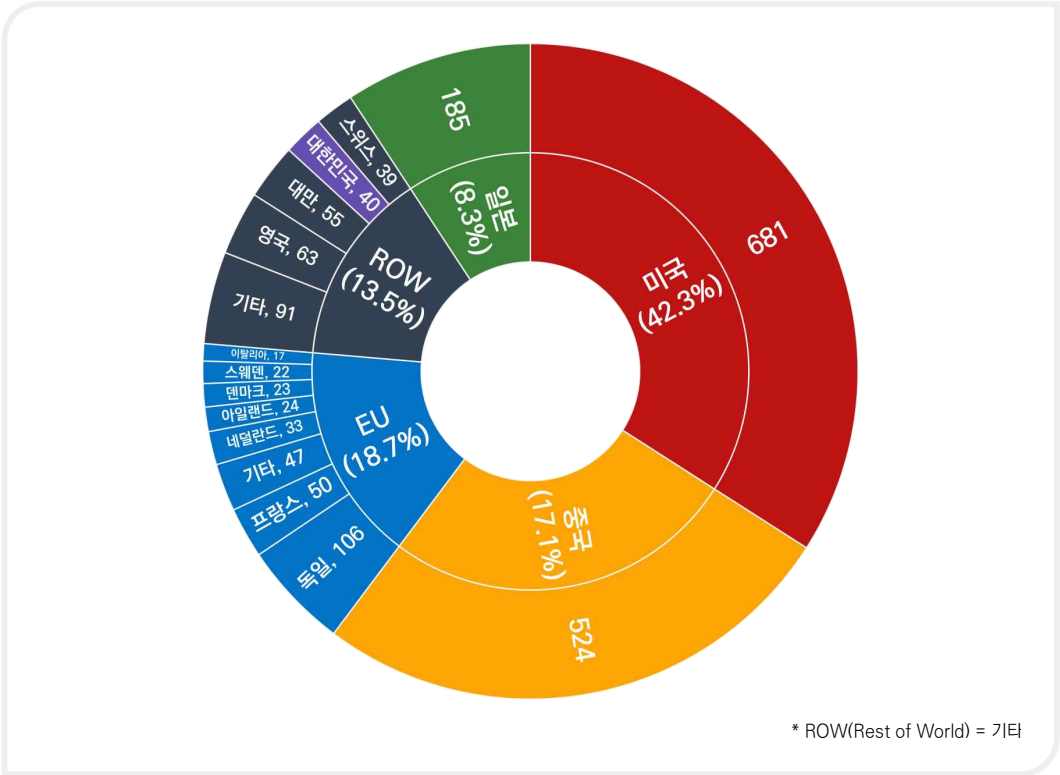
- EU 회원국의 기업 수는 322개(16.1%)로 전년(308개, 15.4%)과 비교하면 14개 증가

〈표 3〉 국가별 R&D 투자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억 €, %, 개)

국가	R&D 투자액		증가율	기업 수	국가	R&D 투자액		증가율	기업 수
미국	5,318.6	(42.3)	5.9	681	이탈리아*	54.3	(0.4)	3.3	17
중국	2,158.1	(17.2)	9.6	524	핀란드*	54.3	(0.4)	-3.5	9
독일*	1,119.2	(8.9)	9.2	106	인도	53.2	(0.4)	18.6	15
일본	1,047.9	(8.3)	7.1	185	호주	41.7	(0.3)	10.8	7
대한민국	425.5	(3.4)	23.7	40	이스라엘	37.1	(0.3)	-2.3	19
스위스	362.1	(2.9)	-2.6	39	벨기에*	31.7	(0.3)	-0.2	9
영국	354.4	(2.8)	6.8	63	싱가포르	26.9	(0.2)	17.6	8
프랑스*	336.8	(2.7)	7.7	50	오스트리아*	19.5	(0.2)	10.7	11
네덜란드*	298.5	(2.4)	13.3	33	룩셈부르크*	19.1	(0.2)	3.3	3
대만	247.9	(2.0)	1.5	55	브라질	17.5	(0.1)	207.3	4
스웨덴*	152.8	(1.2)	20.2	22	사우디아라비아	16.7	(0.1)	55.3	2
아일랜드*	103.7	(0.8)	6.3	24	노르웨이	7.8	(0.1)	-29.3	2
덴마크*	98.8	(0.8)	17.7	23	콜롬비아	4.9	(0.0)	-	1
캐나다	82.4	(0.7)	17.7	24	기타(12개국)	26.1	(0.2)	-	13
스페인*	56.7	(0.5)	12.6	11	합계	12,574.4	(100)	7.7	2,000

주1) * 는 EU 회원국을,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국가는 연구개발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
주2)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반올림된 값으로 개별 값의 총합이 전체 합계 값과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그래프 면적은 국가별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며, 괄호 값은 총 연구개발비 중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6] 주요국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미국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규모 및 상위 기업 수 모두 대체로 증가했으며, 특히 R&D 투자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 R&D 투자 점유율은 비교적 꾸준히 상승해 최근 10년 사이 약 4.1%p 증가
  ※ R&D 투자 점유율: ('14) 38.2% → ('23) 42.3%, 기업 수: ('14) 671개(33.6%) → ('23) 681개(34.1%)
- 미국의 경우 압도적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초거대 기업이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
  ※ 최상위 1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6개, 총 1,577억 유로로 전체의 12.4% 차지

중국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R&D 투자 점유율 및 상위 기업 수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

- 중국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및 기업 수 점유율이 각 11.4%p, 15.2%p 상승
  ※ R&D 투자 점유율: ('14) 5.8% → ('23) 17.2%, 기업 수: ('14) 220개(11%) → ('23) 524개(26.2%)
- 한편, R&D 투자 점유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 다소 둔화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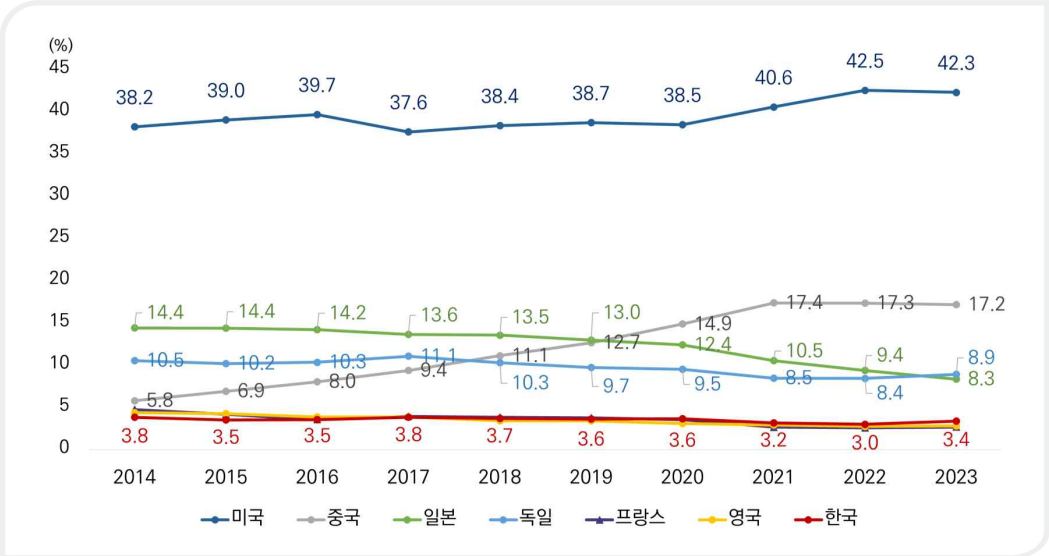
한편, 일본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R&D 투자 점유율 및 기업 수 비중 모두 감소 추세

- 일본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점유율이 6.1%p 감소했고, 기업 수 또한 같은 기간 111개(5.5%p) 감소
  ※ R&D 투자 점유율: ('14) 14.4% → ('23) 8.3%, 기업 수: ('14) 296개(14.8%) → ('23) 185개(9.3%)
- 영국도 R&D 투자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기업 수도 지속해서 감소
  ※ R&D 투자 점유율: ('14) 4.4% → ('23) 2.8%, 기업 수: ('14) 115개(5.8%) → ('23) 63개(3.2%)

독일과 한국은 기업 수 및 R&D 투자 점유율 모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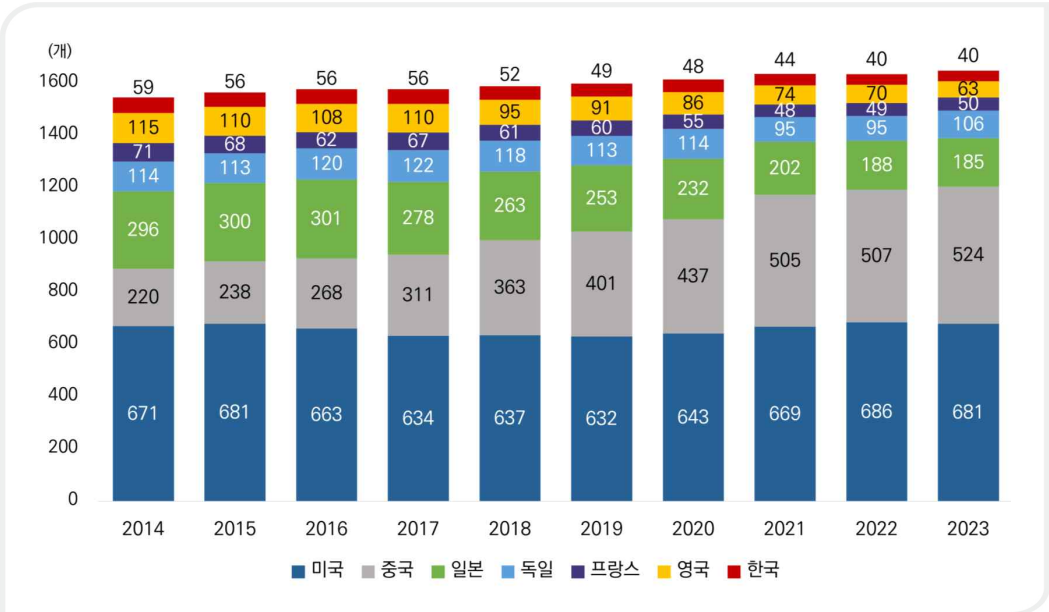
- 최근 10년 사이 기업 수는 독일이 8개, 한국이 19개 줄었으며, R&D 점유율도 각각 1.6%p, 0.4%p 감소
- 2022년 이후 양국 모두 R&D 투자 점유율이 소폭 반등했으며, 특히 독일은 일본을 추월

※ R&D 투자 점유율 – 독일: ('22) 8.4% → ('23) 8.9%, 한국: ('22) 3.0% → ('23) 3.4%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7] 최근 10년간 주요국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8] 최근 10년간 주요국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2.1.3. 산업별 분석

(투자 현황) ICT 하드웨어(2,873억€, 22.8%) 산업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ICT 소프트웨어(20.6%), 제약·바이오(20.5%), 자동차 및 부품(14.7%), 산업재(4.7%) 순

※ 산업분류벤치마크(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 ICB)에 따라 기업별 산업 분야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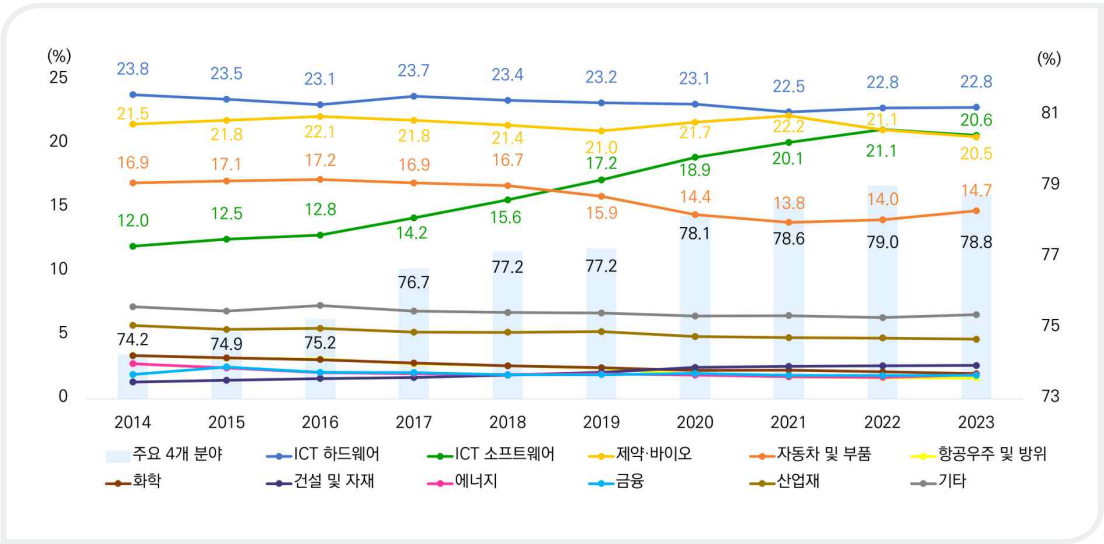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ICT 하드웨어(22.8%)가 부동의 1위이며, ICT 소프트웨어(20.6%)는 빠르게 성장해 2023년 제약·바이오(20.5%)를 근소한 차이로 추월
- 제약·바이오는 21% 내외를 점유하며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소폭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비중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2년간 반등해 2023년 14.7%

〈표 4〉 상위 기업 산업별 R&D 투자 현황 및 기업 수(2022-2023년)

(단위: 개, 억€)

산업 분야	2022년		2023년	
	R&D 투자액	기업 수	R&D 투자액	기업 수
ICT 하드웨어	2,660	371	2,873	382
ICT 소프트웨어	2,463	301	2,596	300
제약·바이오	2,460	446	2,581	437
자동차 및 부품	1,638	150	1,853	154
항공우주 및 방위	193	37	207	38
화학	247	98	249	90
건설 및 자재	302	49	329	58
에너지	197	58	238	63
금융	212	50	232	49
산업재	556	218	588	219
기타	743	222	829	21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주요 4개 분야 =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9] 상위 기업 산업별 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ICT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2% 성장하며 R&D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으며, 건설 및 자재 분야도 연평균 17% 성장

- 주요 4개 산업* 가운데 ICT 소프트웨어(15.2%)가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ICT 하드웨어(7.9%), 제약·바이오(7.8%), 자동차 및 부품(6.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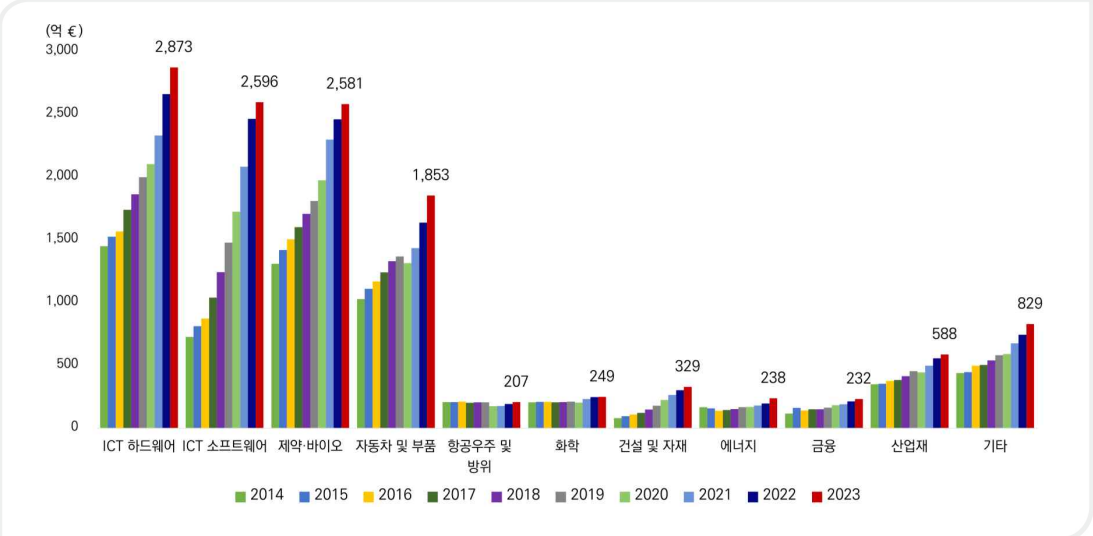
  *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 그 외 산업은 건설 및 자재(17%), 금융(8%), 기타(7.3%), 산업재(5.9%)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항공우주 및 방위(0.0%), 화학(2.1%), 에너지(3.9%)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은 에너지(20.7%)가 가장 높았으며, 주요 4개 산업 중에는 자동차 및 부품(13.2%)이 최상위

- 에너지 산업은 전년 대비 41억 유로(20.7%↑)로 증가했으며,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
-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주요 4개 산업 중 자동차 및 부품(13.2%)이 R&D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 ICT 하드웨어(8.0%), ICT 소프트웨어(5.4%), 제약·바이오(4.9%) 순

※ 그 외 산업은 기타(11.5%), 금융(9.3%), 건설 및 자재(9.0%), 항공우주 및 방위(7.4%), 산업재(5.6%), 화학(0.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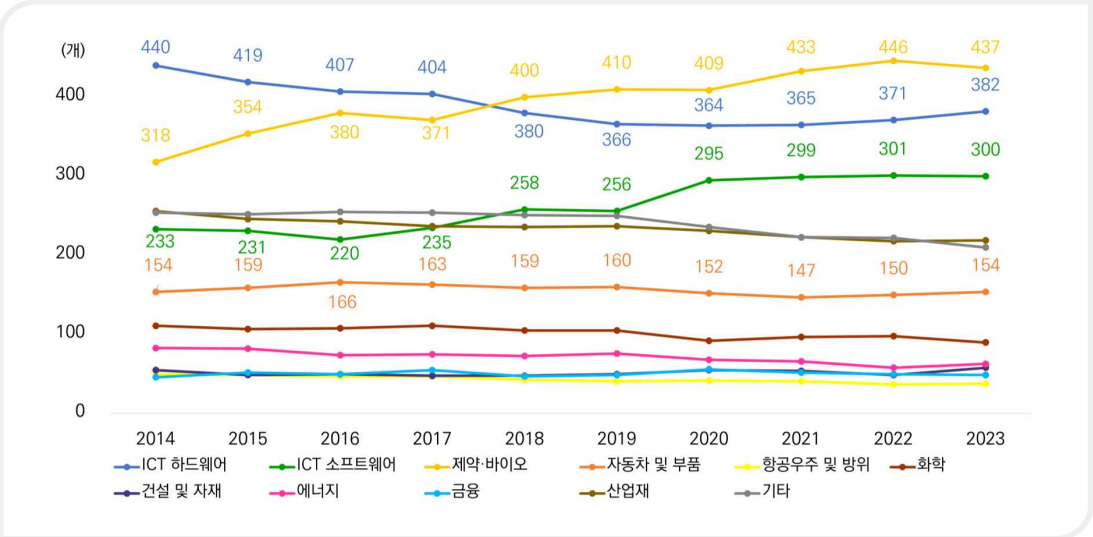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0] 최근 10년간 산업별 기업 R&D 투자 추이(2014-2023년)

(기업 수) 제약·바이오 분야가 43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ICT 하드웨어(382개), ICT 소프트웨어(300개), 산업재(219개), 자동차 및 부품(154개) 순으로 분포

- 2018년 이후 지속된 흐름은 2020년 ICT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증가하며 더욱 뚜렷
- 특히, 최근 10년간 제약·바이오 기업 수는 연평균 3.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ICT 소프트웨어 분야도 연평균 2.8% 증가하며 지속적 확대
- ICT 하드웨어 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 수가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증가 추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1] 최근 10년간 산업별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수준의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는 독일이 두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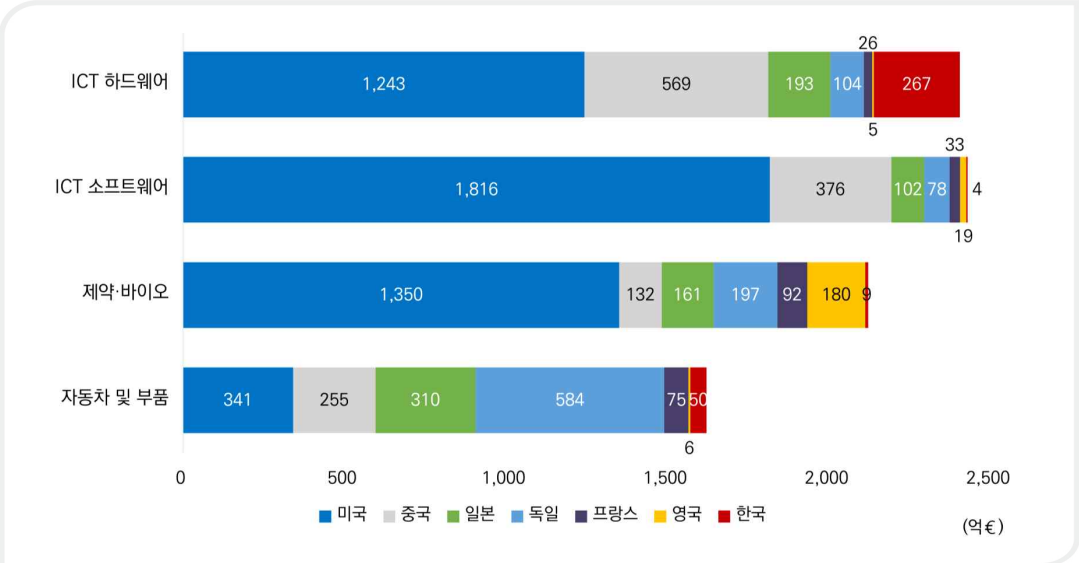
- IC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이 최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각 1,243억 유로(43.2%)와 1,816억 유로(70.0%)를 투자해 선두를 유지했고, 중국이 569억 유로(19.8%), 376억 유로(14.5%)로 그 뒤를 이음
  - 한편, ICT 하드웨어 분야는 한국이 267억 유로를 투자해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제약·바이오 분야도 미국(1,350억 €, 52.3%)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뒤이어 독일(7.6%), 영국(7.0%), 일본(6.2%)이 나란히 7% 안팎 수준을 점유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독일이 584억 유로(31.5%)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미국(18.4%)과 일본(16.7%)이 뒤를 이음

〈표 5〉 주요국 산업별 기업 R&D 투자 점유율(2023년)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합계
ICT 하드웨어	43.2	19.8	6.7	3.6	0.9	0.2	9.3	83.7
ICT 소프트웨어	70.0	14.5	3.9	3.0	1.3	0.7	0.2	93.6
제약·바이오	52.3	5.1	6.2	7.6	3.6	7.0	0.3	82.2
자동차 및 부품	18.4	13.7	16.7	31.5	4.0	0.3	2.7	87.4
항공우주 및 방위	46.9	4.1	0	1.4	13.2	6.1	1.3	72.9
화학	19.3	14.1	26.1	14.8	2.4	1.1	2.0	79.8
건설 및 자재	1.8	86.0	3.3	0.8	2.3	0	0.7	95.0
에너지	14.0	34.4	2.1	7.3	9.1	6.1	3.4	76.4
금융	18.3	4.7	0	9.8	1.1	29.2	0	63.1
산업재	14.2	38.2	11.3	7.6	2.3	1.3	5.8	80.6
기타	31.2	22.1	16.3	3.4	3.9	4.9	5.3	87.1

주) 주요 7개국의 R&D 투자 점유율을 나타내므로 산업별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2] 주요국 주요 산업별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2.2. 상위 50개 기업 현황

2.2.1. 총괄

’23년 상위 50개 기업은 5,037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R&D 투자액의 40.1%를 차지

- 총 5,037억 유로를 투자해 전체 R&D 투자의 약 40.1%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약 6.5% 증가
  ※ 최근 10년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40% 전후 수준 유지 (최소: (’21) 39.7%, 최대: (’16) 41.2%)
- 「2024 EU R&D Scoreboard」 분석 규모가 전 세계 기업 R&D의 약 85~90%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위 50개 기업이 전 세계 기업 R&D 투자액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JRC, 2024)

〈표 6〉 최근 10년간 상위 기업 연구개발비 현황(2014-2023년)

(단위: 십억 €, %)

연도	상위 50개			상위 2,000개	
	R&D 투자액	증가율	점유율	R&D 투자액	증가율
2014년	250.8	-	40.9	608.1	-
2015년	267.4	6.6	40.7	649.8	6.9
2016년	283.4	6.0	41.2	679.6	4.6
2017년	304.5	7.4	40.9	733.1	7.9
2018년	327.6	7.6	40.6	795.9	8.6
2019년	351.7	7.4	40.4	861.4	8.2
2020년	370.0	5.2	40.3	910.7	5.7
2021년	419.0	13.2	39.7	1036.2	13.8
2022년	473.1	12.9	40.2	1167.1	12.6
2023년	503.7	6.5	40.1	1257.4	7.7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3] 최근 10년간 상위 50개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014-2023년)

2.2.2. 국가별 분석

(투자 현황) 주요 7개국* 기업이 총 4,641억 유로를 투자해 상위 50개 기업 투자의 92.1%를 차지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R&D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의 R&D 투자는 2019년 이후 90% 이상 유지
- 미·중 점유율은 63.2%로(미국 54.2%, 중국 9.0%) 양국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절반을 넘었고, 특히 2021년 이후에는 60% 이상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더욱 확대

※ 미중 점유율: ('14) 49.2 → ('15) 52.3 → ('17) 53.3 → ('19) 56.3 → ('20) 58.4 → ('21) 62.1 → ('22) 63.2 → ('23) 63.2

(기업 수) 상위 50위 이내 기업 수는 미국(54.2%, 22개), 독일(6개), 중국(4개), 일본(4개), 한국(2개) 순

- 미국은 상위 50개 기업 중 22개 기업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54.2%)을 기록
- 독일은 최상위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중국은 비교적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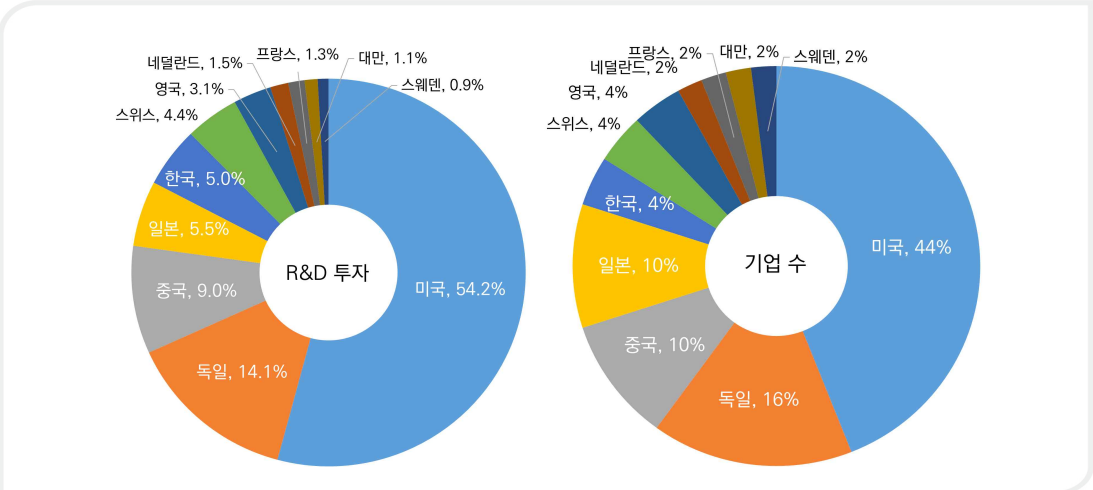
※ 국가별 상위 2,000개 기업 수: 미국(4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한국(40개)

〈표 7〉 주요국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추이

(단위: 억 €, %)

구분	2014년			2018년			2022년			2023년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미국	1,182	(47.1)	21	1,636	(49.9)	22	2,586	(54.7)	23	2,729	(54.2)	22
중국	51	(2.0)	1	172	(5.2)	2	406	(8.6)	4	452	(9.0)	5
일본	257	(10.3)	8	239	(7.3)	6	263	(5.6)	5	275	(5.5)	5
독일	414	(16.5)	8	538	(16.4)	8	655	(13.8)	8	708	(14.1)	8
프랑스	48	(1.9)	1	131	(4.0)	3	67	(1.4)	1	67	(1.3)	1
영국	82	(3.3)	2	91	(2.8)	2	143	(3.0)	2	157	(3.1)	2
한국	130	(5.2)	2	130	(4.0)	1	174	(3.7)	1	252	(5.0)	2
주요 7국	2,165	(86.3)	43	2,935	(89.6)	44	4,293	(90.8)	44	4,641	(92.1)	45
상위 50개	2,508		50	3,276		50	4,731		50	5,037		50

주) R&D 투자액은 '23년도 환율 기준,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시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4]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비중(2023년)

미국의 R&D 투자 점유율은 2021년 이후 50%를 넘어서며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 내 R&D 지배력이 강화

- 2021년에는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투자 점유율이 49.4%에서 53.5%로 큰 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돌파
  - 특히,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압도적 비중(81.9%)을 기록하며 독주 양상이 뚜렷하고, ICT 하드웨어(55%)와 제약·바이오(51.3%) 분야에서도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선두를 유지
- 미국은 최상위 기업의 대규모 R&D 투자 영향으로 상위 50개 기업 R&D 점유율(54.2%)이 상위 2,000개(4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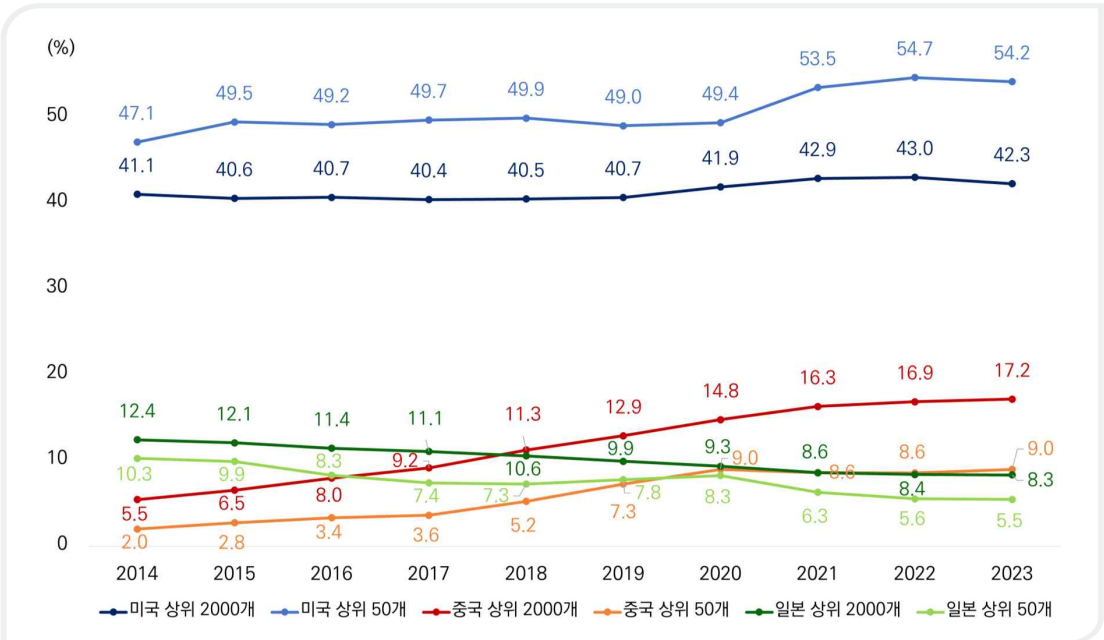
중국의 최상위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주춤

-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성장세 둔화
  - 상위 2,000개 기업의 점유율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상위 50개 기업은 2021년 이후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상위 50위 이내 일본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및 한국 역시 대체로 소폭 감소

- 일본은 2014년과 비교해 전체 및 상위 50위 기업 R&D 점유율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최상위권 R&D 투자 점유율은 2019년 전후로 상승하다 2021년 비교적 크게 하락
- 독일은 최근 10년간 약 3.1%p 감소했고, 프랑스(-0.7%p), 영국(-0.2%p)과 한국(-0.2%p) 역시 소폭 하락
- 다만, 독일, 영국, 한국은 2023년 최상위권 점유율이 일부 증가하며 다소 회복

※ 독일: ('22) 13.4% → ('23) 14.1%, 영국: ('22) 3.0% → ('23) 3.1%, 한국: ('22) 3.8% → ('23) 5.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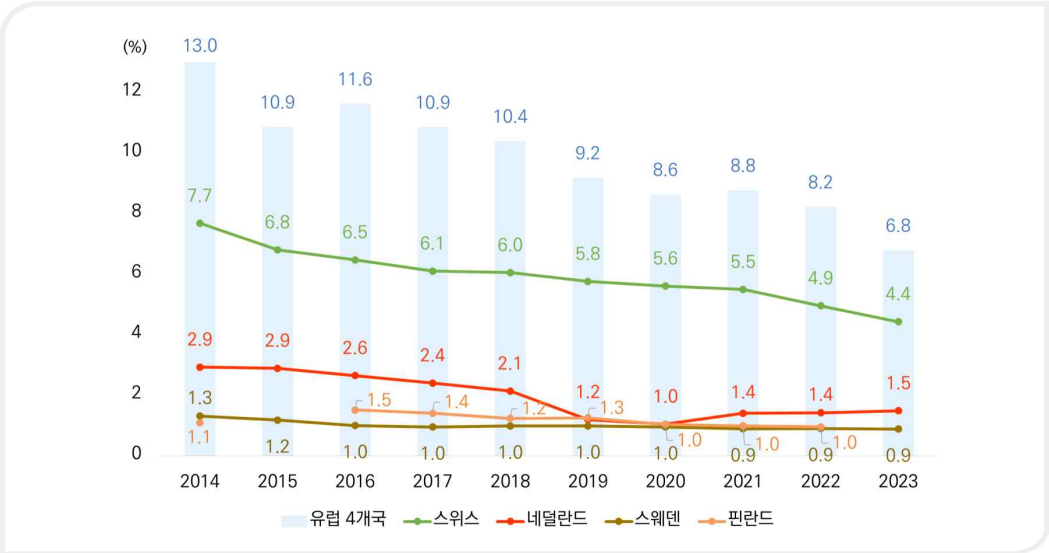
[그림 15] 상위 50위 이내 일본 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 (2014-2023년)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4개국*은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투자에 밀려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네덜란드는 비교적 반등

*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 상위 50개 기업 중 주요 4개 EU 회원국의 R&D 투자 점유율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줄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핀란드 점유율이 크게 감소(1.4%p↓)
- 한편, 네덜란드는 2014년 이후 점유율이 감소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거나 유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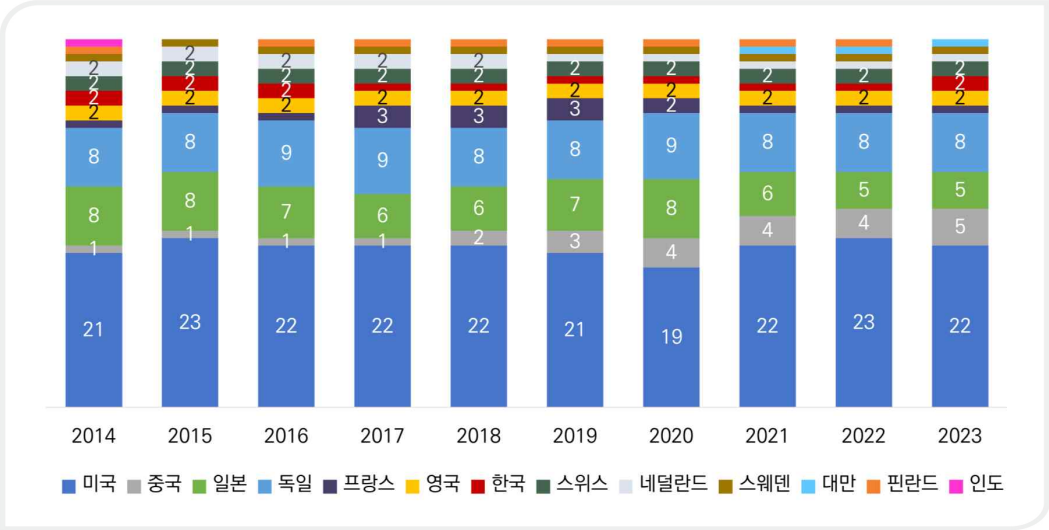
※ 상위 50개 기업 중 네덜란드 R&D 점유율: ('20)1.0% → ('21)1.4% → ('22)1.4% → ('23)1.5%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유럽 4개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를 의미

[그림 16] 최근 10년간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수(2014-2023년)

최근 상위 50위 이내 기업 중 스위스는 2개 기업,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은 각 1개 기업을 보유 중이며, 핀란드는 2023년 NOKIA의 순위 하락(47위→52위)으로 제외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7] 최근 10년간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수(2014-2023년)

2.2.3. 기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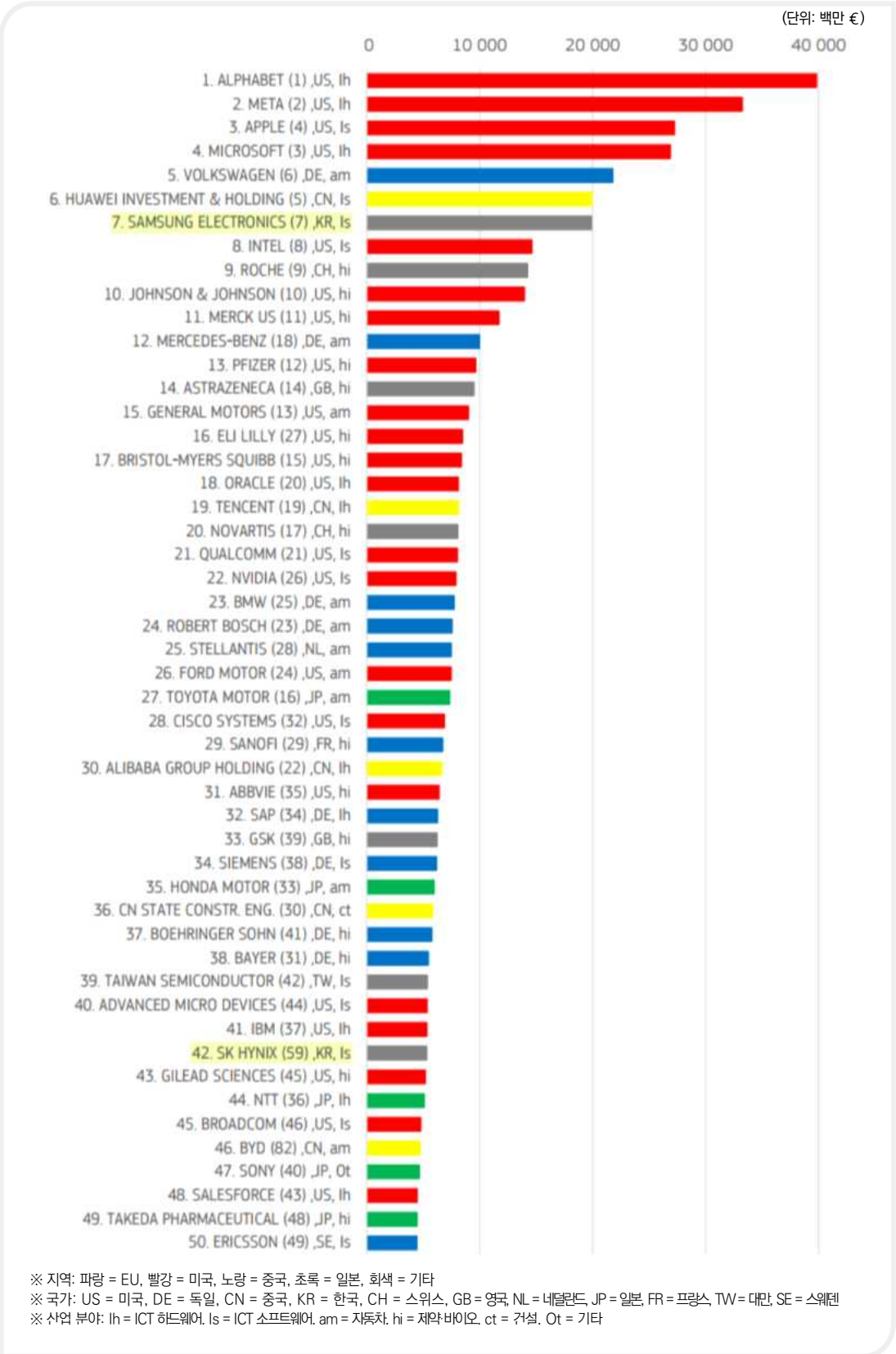
- **전년에 이어 Alphabet과 Meta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했으며, 두 기업 모두 IC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
  - Alphabet은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한 398억 유로를 R&D에 투자해 선두를 유지
  - Meta 또한 총 332억 유로를 지출하며 약 8.5% 투자 확대, 다만 집약도는 소폭 감소(1.8%p↓)
- **Apple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272억 유로를 투자해 Microsoft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으며, Volkswagen 또한 15.2% 투자 확대로 Huawei를 제치고 5위 차지**
  - Microsoft도 전년 대비 R&D 투자 규모가 약 30억 증가하며 규모를 크게 확대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로 인해 두 기업의 순위 역전
  - 마찬가지로, Volkswagen은 약 15.2%, Huawei는 2.2% 확대하며 Volkswagen이 5위로 상승
- **이어 Samsung Electronics, Intel, Roche, Johnson & Johnson이 순위 변동 없이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
  -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가 약 14.4% 증가했으나 전년과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Johnson & Johnson도 5.1% 상승하며 순위 유지
  - 반면, Intel과 Roche는 각각 8.5%, 6.0% 감소하며 R&D 투자가 다소 축소
- **Alphabet, Apple, Volkswagen 순으로 R&D 투자 증가액이 컸으며, 특히 Alphabet과 Apple은 연구개발 인력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JCR, 2024)**
  - Alphabet은 AI 개발을 중심으로 R&D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투자액의 약 50%가 Google DeepMind 및 Google Cloud의 인건비 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
  - Apple은 AI 및 머신러닝(ML), AR 등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인력 비용 증가가 연간 연구개발비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 8〉 상위 10개 기업 R&D 투자 현황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산업 분야	2022년			2023년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1	–	Alphabet	ICT 소프트웨어	370.3	(359.7)	14.0	398.0	14.2	10.7%
2	–	Meta	ICT 소프트웨어	315.2	(306.2)	28.8	332.3	27.0	8.5%
3	↑1	Apple	ICT 하드웨어	246.1	(247.7)	6.7	272.4	7.8	14.0%
4	↓1	Microsoft	ICT 소프트웨어	255.0	(239.1)	12.8	268.7	12.0	8.5%
5	↑1	Volkswagen	자동차 및 부품	189.1	(195.1)	6.8	217.8	6.8	15.2%
6	↓1	Huawei Investment & Holding	ICT 하드웨어	209.3	(189.1)	24.3	199.4	22.4	2.2%
7	–	Samsung Electronics	ICT 하드웨어	184.4	(173.9)	8.2	198.9	10.9	14.4%
8	–	Intel	ICT 하드웨어	164.3	(159.6)	27.8	146.1	29.6	-8.5%
9	–	Roche	제약·바이오	142.7	(151.4)	22.2	142.3	22.5	-6.0%
10	–	Johnson & Johnson	제약·바이오	136.9	(133.0)	15.4	139.7	17.8	5.1%

주) 괄호 값은 '23년도 환율 적용 값으로 증감률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집약도는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중을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괄호 안은 2022년 스코어보드 순위이며, ALPHABET(Is)과 APPLE(Ih)는 산업 분야가 잘못 표기
자료) 「2024 EU R&D Scoreboard」에서 발췌

[그림 18] 2023년 R&D 투자 상위 50개 기업

BYD는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R&D 투자 증가율(99.2%)을 기록하며 순위도 36계단 상승

-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47억 3천만 유로를 투자했고, 2023년 82위에서 46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상위 50위권에 새롭게 진입

  - 전기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 배터리 및 기타 전자 부품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JRC, 2024)

SK Hynix(69.3%)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어 Eli Lilly, Nvidia, Advanced Micro Devices, Mercedes-Benz 순

- SK하이닉스는 R&D 투자가 전년 대비 69.3% 증가했고, 순위가 42위로 큰 폭 상승하며 상위 50위권에 새로이 진입
- Eli Lilly(29.5%↑), NVIDIA(18.2%↑), AMD(17.3%↑), Mercedes-Benz(17.3%↑)도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순위 상승

〈표 9〉 주요 상위 기업 R&D 투자 증가 현황(2023년)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국가	산업 분야	R&D 투자	집약도	증가액	성장률
1	-	Alphabet	미국	ICT 소프트웨어	398.0	14.2	38.3	10.7
3	↑1	Apple	미국	ICT 하드웨어	272.4	7.8	33.4	14.0
5	↑1	Volkswagen	독일	자동차 및 부품	217.8	6.8	28.7	15.2
2	-	Meta	미국	ICT 소프트웨어	332.3	27.0	26.1	8.5
7	-	Samsung Electronics	한국	ICT 하드웨어	198.9	10.9	25.0	14.4
46	↑36	BYD	중국	자동차 및 부품	47.3	6.2	23.5	99.2
42	↑17	SK Hynix	한국	ICT 하드웨어	53.1	23.1	21.7	69.3
4	↓1	Microsoft	미국	ICT 소프트웨어	268.7	12.0	21.1	8.5
16	↑11	Eli Lilly	미국	제약·바이오	84.8	27.3	19.3	29.5
12	↑6	Mercedes-Benz	독일	자동차 및 부품	99.8	6.5	14.7	17.3

주)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기업이며, 순위는 R&D 투자를 기준으로 한 스코어보드 순위를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Intel(-8.5%), Bayer(-17.6%), Roche(-6%)는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큰 폭 R&D 투자가 감소 했으나, R&D 투자 증가 기업의 R&D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

- Intel은 전년 대비 13억 5천만 유로 감소하며 가장 큰 폭 하락했으나, R&D 투자 증가 상위 기업들의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Bayer는 R&D 투자 규모가 약 11억 7천만 유로(17.6%) 줄어들며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감소율(-17.6%)을 기록

2.2.4. 산업별 분석

(투자 현황) 상위 50개 기업은 총 6개 산업에 분포하며, 주요 산업* R&D 투자 비중은 97.9%로 상위 2,000개 기업과 비교해 집중도가 높은 편 * ICT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 R&D 투자액은 ICT 소프트웨어가 1,359억 유로(28.6%)로 가장 많고, 이어 ICT 하드웨어(27.0%), 제약·바이오(24.7%), 자동차 및 부품(17.7%), 건설 및 자재(1.2%), 기타(0.9%) 순
- 주요 4개 산업의 비중은 97.9%로 상위 2,000개 기업(78.8%)보다 높으며, 최상위 기업의 R&D 투자는 사실상 이들 산업에 집중

(기업 수) 제약·바이오(15개), ICT 하드웨어(13개), ICT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및 부품(10개) 순으로 상위 2,000개 기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그 외 건설 및 자재와 기타는 각 1개에 불과

〈표 10〉 산업별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개, 억€, %)

산업 부문	상위 50개					상위 2,000개			
	기업 수		R&D 투자액		집약도	기업 수		R&D 투자액	
ICT 하드웨어	13	(26)	1,359	(27.0)	17.0	382	(19.1)	2,873	(22.8)
ICT 소프트웨어	10	(20)	1,439	(28.6)	13.7	300	(15.0)	2,596	(20.6)
제약·바이오	15	(30)	1,242	(24.7)	19.0	437	(21.9)	2,581	(20.5)
자동차 및 부품	10	(20)	891	(17.7)	5.5	154	(7.7)	1,853	(14.7)
항공우주 및 방위	-	-	-	-	-	38	(1.9)	207	(1.6)
화학	-	-	-	-	-	90	(4.5)	249	(2.0)
건설 및 자재	1	(2)	58	(1.2)	5.2	58	(2.9)	329	(2.6)
에너지	-	-	-	-	-	63	(3.2)	238	(1.9)
금융	-	-	-	-	-	49	(2.5)	232	(1.8)
산업재	-	-	-	-	-	219	(11.0)	588	(4.7)
기타	1	(2)	47	(0.9)	5.9	210	(10.5)	829	(6.6)
합계	50	100	5,037	100	-	2,000	100	12,574	100

주)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집약도는 순매출 대비 R&D 투자 값으로 산업 분야별 각 기업 값을 평균하여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10개 중 6개는 ICT 관련 기업이고, 감소 기업 10개 중 절반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해당

-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증가폭이 가장 큰 10개 기업 중 6개가 ICT 분야(하드웨어 3개, 소프트웨어 3개)로, 최상위권 기업의 ICT 투자 집중 현상이 뚜렷
- 반면,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 10개 중 절반은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Bayer, Roche[2], Pfizer, Novartis, Bristol-Myers Squibb)이 차지

2) Roche는 재무 기록상 R&D 비용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본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

〈표 11〉 주요 상위 기업 R&D 투자 감소 현황(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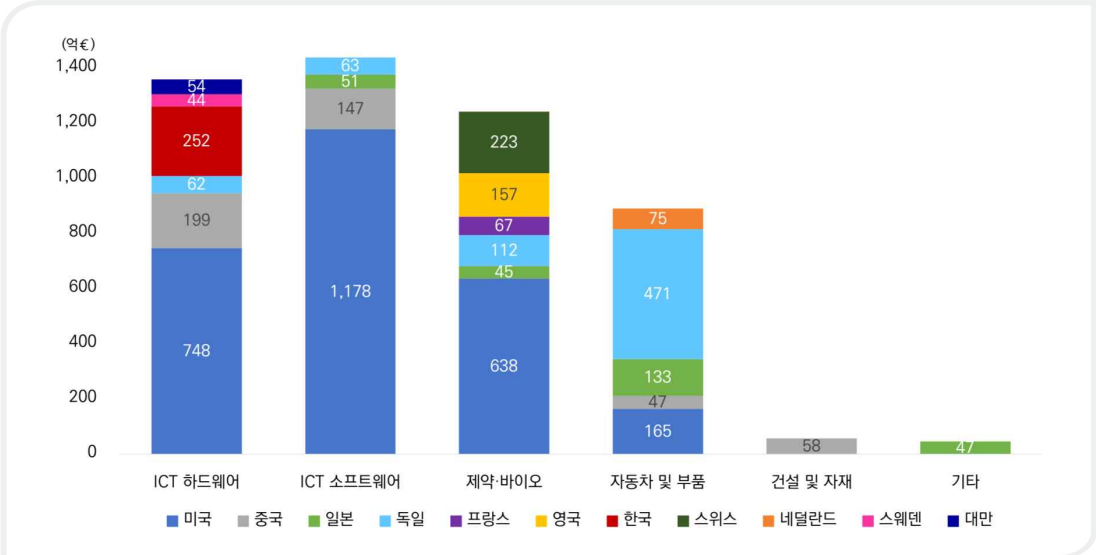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국가	산업 분야	R&D 투자	집약도	증감액	성장률
8	-	Intel	미국	ICT 하드웨어	146.1	29.6	-13.5	-8.5
38	↓7	Bayer	독일	제약·바이오	54.6	11.5	-11.7	-17.6
9	-	Roche	스위스	제약·바이오	142.3	22.5	-9.1	-6.0
13	↓1	Pfizer	미국	제약·바이오	96.3	18.1	-7.7	-7.4
30	↓8	Alibaba Group Holding	중국	ICT 소프트웨어	66.2	5.6	-5.7	-7.9
36	↓6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중국	건설 및 자재	58.3	2.0	-3.9	-6.2
20	↓3	Novartis	스위스	제약·바이오	80.7	16.4	-2.1	-2.5
27	↓11	Toyota Motor	일본	자동차 및 부품	73.5	2.7	-2.0	-2.6
17	↓2	Bristol-Myers Squibb	미국	제약·바이오	83.8	20.5	-1.9	-2.2
41	↓4	IBM	미국	ICT 소프트웨어	53.3	9.5	-1.5	-2.7

주)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기업이며, 순위는 스코어보드 내 순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약·바이오 분야는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강세를 보이며,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독일(52.8%)이 시장을 주도

- 제약·바이오 분야는 스위스(223억 유로), 영국(157억 유로), 독일(112억 유로), 프랑스(67억 유로) 등 유럽 주요국이 전체 투자 비중의 45.1%를 차지하며 ICT 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상위 50위 내 기업 중 독일 자동차 기업은 4개(Volkswagen, Mercedes-Benz, BMW, Robert Bosch)이며, 모두 EU R&D 투자 순위 1~4위를 기록해 산업 내 독일의 우위가 뚜렷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9] 상위 50개 기업 산업별 주요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3. 한국 현황

3.1. 총괄

(총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은 40개이며, 전 세계 R&D 투자액의 3.4%에 해당하는 425억 유로를 투자

- 기업 수는 40개로 전년과 같으나, R&D 투자는 23.7% 증가해 역대 최대치이자 세계 5위 수준 기록
- 2014년과 비교해 기업 수는 약 2/3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배 이상 확대
- 최근 10년간 R&D 투자 점유율은 3.4% 안팎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이어지던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2023년 3.4%로 반등(+0.5%p)

  ※ R&D 투자 점유율(%): ('14) 3.5 → ('16) 3.4 → ('18) 3.3 → ('20) 3.3 → ('21) 3.1 → ('22) 2.9 → ('23) 3.4

(R&D 집약도) 2023년 한국 기업의 R&D 집약도는 4.0%로, 전년 대비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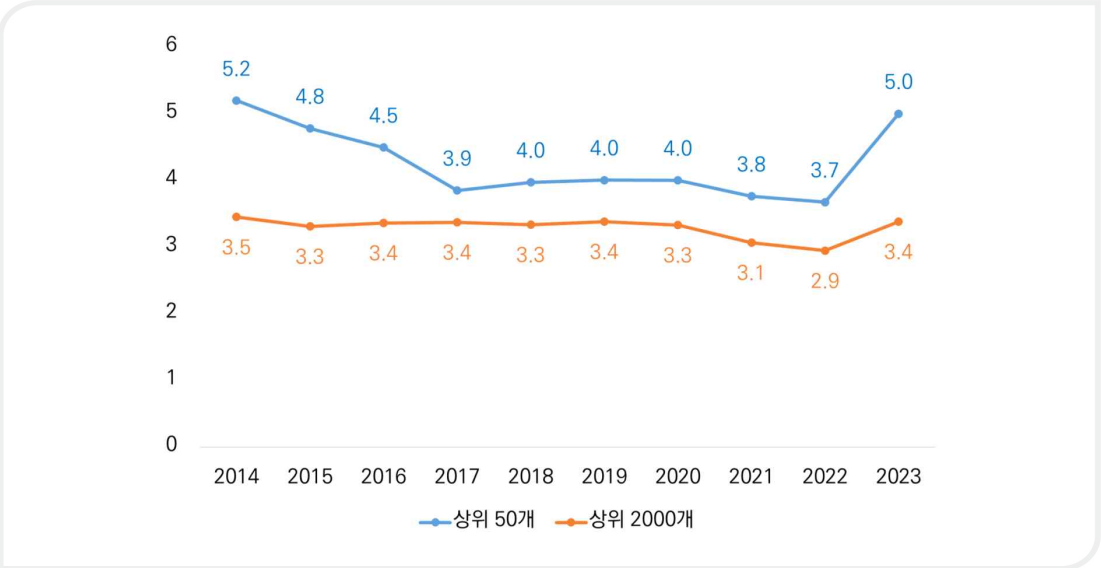
- 2014년 2.8%에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며 2020년 4.0% 기록
- 이후 2년 연속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3년 반등하며(+0.5%p) 다시 2020년 수준 회복

주)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순매출액'이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3년도 환율을 적용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0] 한국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추이(2014-2023년)

한편, 상위 50위 이내 한국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은 2023년 크게 반등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에 근접

- 2014년(5.2%)부터 2017년(3.9%)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2022년까지 4% 안팎 유지
- 2023년 전년 대비 큰 폭(+1.3%p) 상승해 2014년 기록한 최고치(5.2%)에 근접했으며,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의 점유율도 3.4%로 반등(+0.5%p)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1]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최근 10년간 상위 100위권 한국 기업 수는 4개*로 동일하며, 전체 R&D 투자액의 70% 이상이 최상위 소수 기업에 집중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자동차

- 2014년 이후 10위권 기업은 1개, 11-100위 기업은 3개로 100위권에 4개 기업이 변동 없이 유지
- 10위권 이내에 있는 기업 1개가 2023년 총 199억 유로를 투자해 한국 기업 R&D 투자의 약 46.7%를 차지하며, 100위 이내 기업 4개가 전체 투자 규모의 72.4%를 차지

※ '23년 한국 기업 구간별 R&D 투자: (1-10위) 199억 €, (11-100위) 109억 €, (101-1000위) 93억 €

〈표 12〉 최근 10년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수 구간별 현황(2014-2023년)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년	2023년
1~10위	1	1	1	1	1	1	1	1	1	1
11~100위	3	3	3	3	3	3	3	3	3	3
101위~1,000위	18	16	21	21	20	21	23	14	13	16
1,001위~2,000위	37	34	31	31	28	24	21	26	23	20
총합계	59	54	56	56	52	49	48	44	40	4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2. 기업별 현황

상위 10위 이내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며, 2023년에는 SK하이닉스가 상위 50위권에 새로이 진입

- 삼성전자는 전년과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16위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위 10위권을 유지하며 한국 기업 R&D 투자를 견인

  ※ 2013년 이전 삼성전자 순위 추이: ('05) 7위 → ('07) 8위 →('08) 16위 → ('09) 7위 → ('11) 5위 → ('13) 2위

- SK하이닉스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3년 59위에서 42위로 크게 도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상위 기업 중에서도 높은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R&D 투자 확대를 주도한 기업으로 평가(JRC, 2024)

- 삼성전자는 R&D 투자액이 전년 대비 25억 유로, SK하이닉스는 22억 유로 증가해 상위 50개 기업 내에서도 두드러진 성장률을 나타냄

  - 특히, SK하이닉스는 중국 BYD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열 번째 수준

    ※ 기업별 R&D 투자 증가율('23): BYD 99.2%, SK하이닉스 69.3%, 삼성전자 14.4%

기아(+26%)와 한화(+22.8%)는 20% 이상 R&D 투자를 확대하며 순위가 큰 폭 상승했으며, 현대자동차(+19.6%), 현대모비스(+16.8%), LG화학(+15.9%) 또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순위 상승

- 기아는 전년 대비 R&D 투자 규모가 26% 증가해 392위(50위↑), 한화는 22.8% 증가해 344위(39위↑)로 순위 상승

  - 기아는 2021년 R&D 투자 축소로 순위가 급락(140위→392위)했으나 2023년 일부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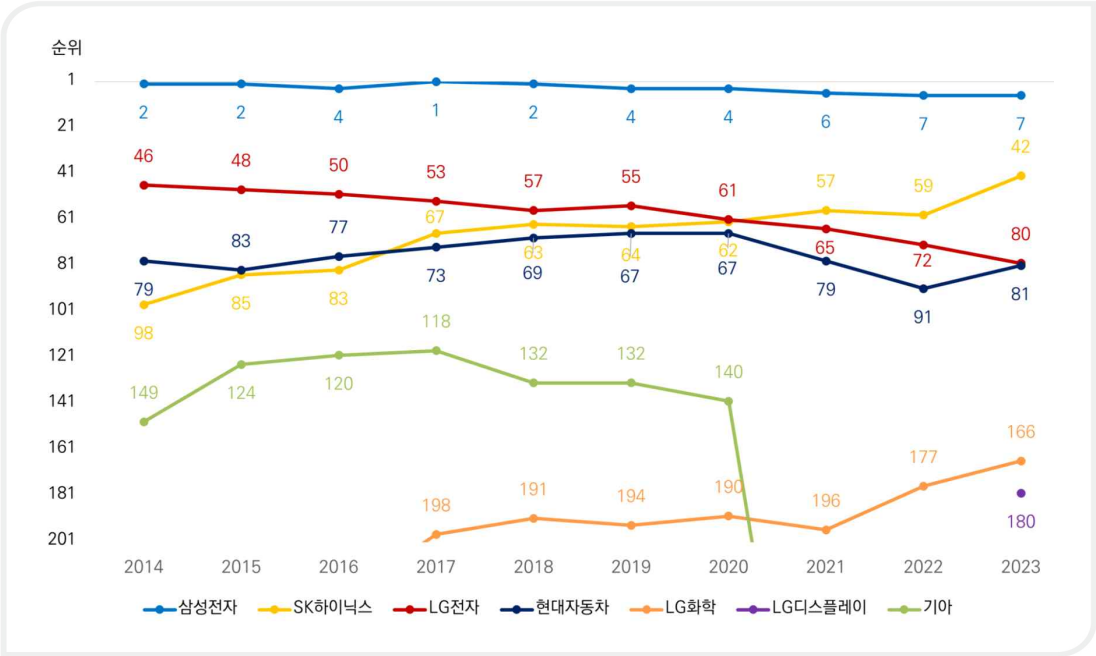
-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최근 R&D 투자 규모 증가 추세이며, 투자 확대와 함께 순위도 상승

〈표 13〉 한국 상위 기업 R&D 투자 추이(2022-2023년)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가율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7	-	삼성전자	18,435.4	(17,391.3)	8.2	19,890.5	10.9	14.4
42	↑17	SK하이닉스	3,323.8	(3,135.6)	10.1	5,307.6	23.1	69.3
80	↓8	LG전자	2,745.5	(2,590.0)	4.4	2,814.9	4.8	8.7
81	↑10	현대자동차	2,468.4	(2,328.6)	2.3	2,785.6	2.4	19.6
166	↑11	LG화학	1,305.6	(1,231.7)	3.4	1,427.1	3.6	15.9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1,402.6	(1,323.1)	7.2	1,314.8	8.8	-0.6
210	↑9	현대모비스	1,014.2	(956.7)	2.6	1,117.7	2.7	16.8
273	↓2	삼성SDI	796.3	(751.2)	5.3	797.6	5.0	6.2
344	↑39	한화	545.3	(514.4)	1.2	631.9	1.7	22.8
392	↑50	기아	461.2	(435.1)	0.7	548.3	0.8	26.0
413	↓39	한국전력공사	561.6	(529.8)	1.1	503.6	0.8	-4.9
415	↓20	SK	516.3	(487.1)	0.5	501.3	0.5	2.9
482	↓2	삼성전기	417.2	(393.6)	6.0	412.6	6.6	4.8

주) 괄호 값은 '23년도 환율 적용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2] 최근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위 내 한국 기업의 순위 변화 추이(2014-2023년)

3.3. 산업별 현황

2023년 ICT 하드웨어 분야 기업은 총 267억 유로를 투자하여 압도적 점유율(62.7%)을 기록했으며, 최근 10년간 R&D 투자 집중 경향 지속

- 2014년(127억 유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은 대만과 함께 전기·전자 장비와 반도체 등 세부 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JRC, 2024)

  ※ 전자 장비: ('14) 109억 € → ('23) 208억 €, 반도체: ('14) 12억 € → ('23) 54억 €

- 최근 10년간 ICT 하드웨어 분야 비중은 2014년 60.3%에서 2016년 55.9%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62.7%를 기록했고, 특히 2022년에는 64.0%로 최대치 달성

  ※ ICT 하드웨어 투자 비중: ('14) 60.3 → ('16) 55.9 → ('18) 60.8 → ('19) 60.0 → ('21) 62.3 → ('22) 64.0 → ('23)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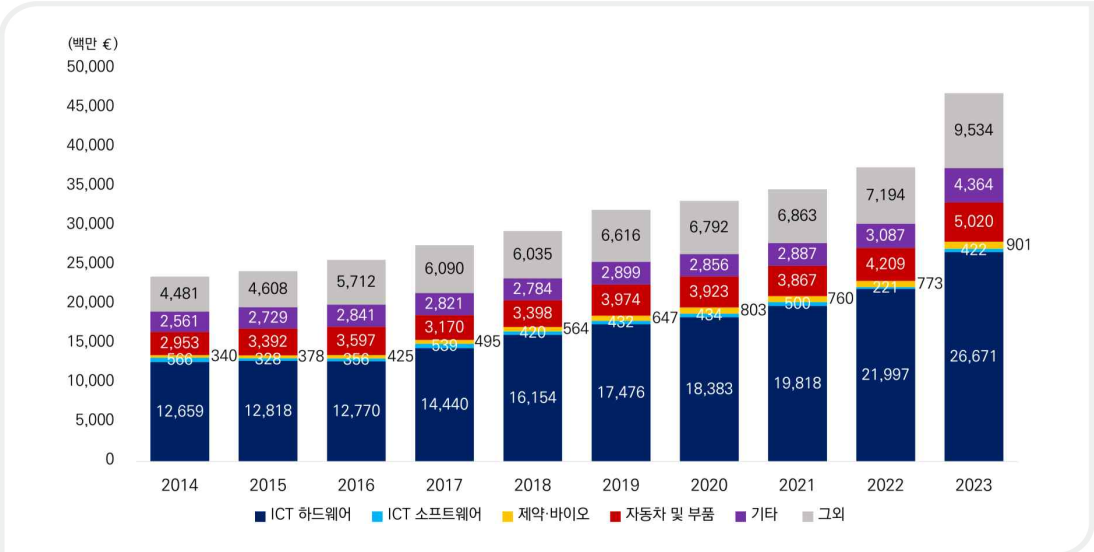
〈표 14〉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산업별 R&D 투자 추이(2014-2023년)

(단위: 백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ICT 하드웨어	12,659	12,818	12,770	14,440	16,154	17,476	18,383	19,818	21,997	26,671	8.6%
ICT 소프트웨어	566	328	356	539	420	432	434	500	221	422	-3.2%
제약·바이오	340	378	425	495	564	647	803	760	773	901	11.5%
자동차 및 부품	2,953	3,392	3,597	3,170	3,398	3,974	3,923	3,867	4,209	5,020	6.1%
항공우주 및 방위	147	146	125	260	265	273	440	287	126	262	6.7%
화학	189	144	168	143	108	414	477	609	629	501	11.5%
건설 및 자재	146	93	113	112	132	214	229	251	249	228	5.1%
에너지	577	607	664	778	755	756	709	769	530	796	3.7%
금융	0	0	66	65	0	0	0	0	0	0	-
산업재	861	887	1,736	1,910	1,992	2,060	2,080	2,060	2,574	3,382	16.4%
기타	2,561	2,729	2,841	2,821	2,784	2,899	2,856	2,887	3,087	4,364	6.1%
총합계	20,998	21,523	22,860	24,734	26,571	29,146	30,336	31,808	34,394	42,548	8.2%

주) 연평균 증가율은 CAGR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3]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주요 산업 R&D 투자 추이 (2014-2023년)

ICT 하드웨어 산업을 이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ICT 하드웨어에 비해 ICT 소프트웨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 R&D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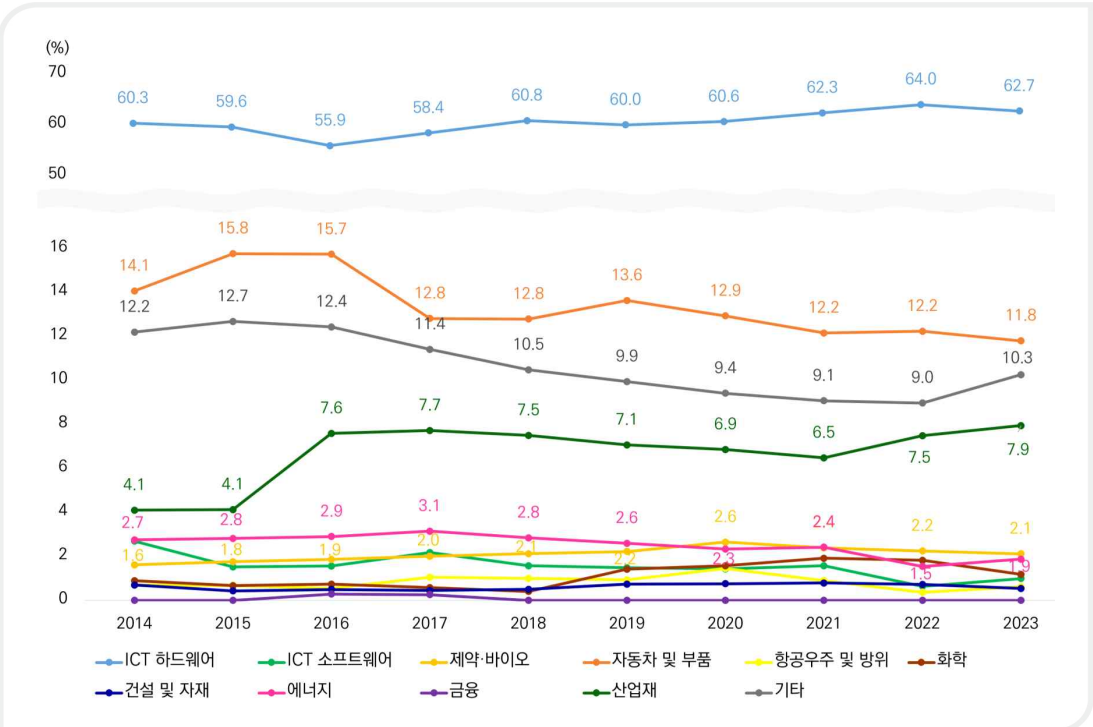
- ICT 하드웨어의 R&D 투자 비중은 62.7%로 한국 기업 R&D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자동차 및 부품(11.8%), 기타(10.3%), 산업재(7.9%), 제약·바이오(2.1%) 순
- 특히, 제약·바이오(2.1%)와 ICT 소프트웨어(1.0%)의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

〈표 15〉 주요 국가 산업별 기업 R&D 투자 비중(2023년)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평균
ICT 하드웨어	23.4	26.4	18.4	9.3	7.6	1.4	62.7	21.3
ICT 소프트웨어	34.2	17.4	9.8	7.0	9.7	5.4	1.0	12.1
제약·바이오	25.4	6.1	15.3	17.6	27.5	50.7	2.1	20.7
자동차 및 부품	6.4	11.8	29.6	52.2	22.2	1.6	11.8	19.4
항공우주 및 방위	1.8	0.4	0.0	0.3	8.1	3.5	0.6	2.1
화학	0.9	1.6	6.2	3.3	1.7	0.8	1.2	2.2
건설 및 자재	0.1	13.1	1.1	0.2	2.3	0.0	0.5	2.5
에너지	0.6	3.8	0.5	1.5	6.4	4.1	1.9	2.7
금융	0.8	0.5	0.0	2.0	0.8	19.1	0.0	3.3
산업재	1.6	10.4	6.4	4.0	3.9	2.1	7.9	5.2
기타	4.9	8.5	12.9	2.5	9.7	11.4	10.3	8.6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4]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주요 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최근 10년간 산업재 분야는 안정적인 확대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6.4%) 기록

- 상위 2,000개 기업 중 산업재 분야 기업은 총 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R&D 투자 비중은 네 번째로 높음

  * LG화학(166위), 한화(344위), 포스코(529위), 두산(598위), HD현대(674위), 두산에너빌리티(689위), LS(1990위)

  - 주요 국가 산업별 기업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10.4%)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7.9%)을 기록

-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으며, R&D 집중도는 평균 1.7%로 비교적 낮은 편

〈표 16〉 최근 10년간 산업별 한국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ICT 하드웨어	11	12	10	10	9	8	8	8	7	6
ICT 소프트웨어	4	3	3	3	3	3	3	3	2	2
제약·바이오	7	7	7	7	7	7	8	8	7	8
자동차 및 부품	8	10	9	8	9	10	9	7	7	7
항공우주 및 방위	1	1	1	2	2	2	2	2	1	1
화학	5	4	4	4	2	3	3	3	3	1
건설 및 자재	4	2	2	2	2	2	2	2	2	2
에너지	5	3	3	3	3	3	2	2	1	2
금융	-	-	1	1	-	-	-	-	-	-
산업재	7	7	8	8	8	6	7	6	6	7
기타	7	7	8	8	7	5	4	3	4	4
총합계	59	54	56	56	52	49	48	44	40	40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약·바이오 산업 비중은 약 2.1%(901억€)로, 주요 7개국의 산업별 투자 현황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5%로 산업재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901억 유로로 해당 산업 전 세계 투자 규모의 0.3%를 점유
- 제약·바이오 비중(2.1%)은 주요 7개국의 산업별 비중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편(평균 20.7%)

LG전자(80위)가 기타 산업의 세부 분야인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180위), 삼성물산(1,080위), 아모레퍼시픽(1,931위) 등이 포함

부록

〈표 17〉 최근 2년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현황(2022-2023년)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1	-	Alphabet	370.3	(359.7)	14.0	398.0	14.2	38.3	10.7%
2	-	Meta	315.2	(306.2)	28.8	332.3	27.0	26.1	8.5%
3	↑1	Apple	246.1	(247.7)	6.7	272.4	7.8	33.4	14.0%
4	↓1	Microsoft	255.0	(239.1)	12.8	268.7	12.0	21.1	8.5%
5	↑1	Volkswagen	189.1	(195.1)	6.8	217.8	6.8	28.7	15.2%
6	↓1	Huawei Investment & Holding	209.3	(189.1)	24.3	199.4	22.4	4.3	2.2%
7	-	Samsung Electronics	184.4	(173.9)	8.2	198.9	10.9	25.0	14.4%
8	-	Intel	164.3	(159.6)	27.8	146.1	29.6	-13.5	-8.5%
9	-	Roche	142.7	(151.4)	22.2	142.3	22.5	-9.1	-6.0%
10	-	Johnson & Johnson	136.9	(133.0)	15.4	139.7	17.8	6.7	5.1%
11	-	Merck US	110.8	(107.6)	19.9	117.0	21.4	9.4	8.7%
12	↑6	Mercedes-Benz	85.1	(78.5)	5.7	99.8	6.5	14.7	17.3%
13	↓1	Pfizer	107.1	(85.1)	11.4	96.3	18.1	-7.7	-7.4%
14	-	Astrazeneca	89.4	(86.9)	21.5	95.0	22.8	8.2	9.4%
15	↓2	General Motors	91.9	(104.1)	6.3	90.2	5.8	0.9	1.0%
16	↑11	Eli Lilly	67.4	(75.5)	25.2	84.8	27.3	19.3	29.5%
17	↓2	Bristol-Myers Squibb	88.2	(89.2)	20.4	83.8	20.5	-1.9	-2.2%
18	↑2	Oracle	80.8	(82.8)	17.3	81.2	17.8	2.7	3.4%
19	-	Tencent	82.4	(76.8)	11.1	81.2	10.5	4.4	5.7%
20	↓3	Novartis	85.2	(85.7)	17.5	80.7	16.4	-2.1	-2.5%
21	-	Qualcomm	76.8	(74.6)	18.5	80.3	24.6	5.7	7.6%
22	↑4	Nvidia	68.8	(71.0)	27.2	79.0	14.2	12.2	18.2%
23	↑2	BMW	71.8	(67.2)	5.0	77.6	5.0	5.8	8.0%
24	↓1	Rovert Bosch	74.8	(71.8)	8.5	75.6	8.3	0.8	1.1%
25	↑3	Stellantis	67.2	(61.6)	3.7	74.8	3.9	7.6	11.4%
26	↓2	Ford Motor	73.1	(74.8)	4.9	74.7	4.7	3.6	5.1%
27	↓11	Toyota Motor	87.8	(65.5)	3.3	73.5	2.7	-2.0	-2.6%
28	↑4	Cisco Sytems	63.4	(61.4)	13.1	68.8	13.2	7.2	11.7%
29	-	Sanofi	67.1	(67.1)	15.6	67.3	15.6	0.2	0.3%
30	↓8	Alibaba Group Holding	77.1	(66.8)	6.6	66.2	5.6	-5.7	-7.9%
31	↑4	Abbvie	60.8	(53.5)	11.2	64.1	13.0	5.0	8.5%
32	↑2	SAP	61.4	(55.9)	19.9	62.8	20.1	1.4	2.3%
33	↑6	GSK	54.8	(48.0)	13.9	62.3	17.7	6.0	10.7%
34	↑4	Siemens	55.9	(66.3)	7.8	61.8	8.0	5.9	10.6%
35	↓2	Honda Motor	62.2	(56.3)	5.2	59.7	4.8	6.2	11.6%
36	↓6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66.7	(71.9)	2.4	58.3	2.0	-3.9	-6.2%
37	↑4	Boehringer Sohn	50.5	(54.8)	20.9	57.7	22.5	7.2	14.2%
38	↓7	Bayer	66.3	(59.1)	13.1	54.6	11.5	-11.7	-17.6%
39	↑3	Taiwan Semiconductor	49.8	(31.4)	7.2	53.7	8.4	5.7	11.8%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40	↑4	Advanced Micro Devices	46.9	(49.2)	21.2	53.5	25.9	7.9	17.3%
41	↓4	IBM	56.5	(50.5)	9.9	53.3	9.5	-1.5	-2.7%
42	↑17	SK Hynix★	33.2	(31.4)	10.1	53.1	23.1	21.7	69.3%
43	↑2	Gilead Sciences	46.7	(44.8)	18.2	51.9	21.0	6.6	14.5%
44	↓8	NTT	57.2	(62.2)	6.2	51.0	6.2	1.7	3.5%
45	↑1	Broadcom	46.1	(23.7)	14.8	47.8	14.7	3.0	6.8%
46	↑36	BYD★	25.5	(23.7)	4.7	47.3	6.2	23.5	99.2%
47	↓7	Sony	53.4	(45.6)	6.5	46.7	5.9	0.7	1.6%
48	↓5	Salesforce	47.4	(45.3)	16.1	44.7	14.1	-1.4	-2.9%
49	↓1	Takeda Pharmaceutical	44.8	(46.0)	15.7	44.6	17.1	6.1	15.9%
50	↓1	Ericsson	42.5	(38.5)	17.4	44.4	18.7	1.8	4.1%

주1) ★는 상위 50위권에 신규 진입한 경우
주2) 괄호 값은 2023년 환율이 적용된 값으로, 증감액 및 증감률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18〉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2-2023년)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가율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7	-	삼성전자	18,435.4	(17,391.3)	8.2	19,890.5	10.9	14.4%
42	↑17	SK하이닉스	3,323.8	(3,135.6)	10.1	5,307.6	23.1	69.3%
80	↓8	LG전자	2,745.5	(2,590.0)	4.4	2,814.9	4.8	8.7%
81	↑10	현대자동차	2,468.4	(2,328.6)	2.3	2,785.6	2.4	19.6%
166	↑11	LG화학	1,305.6	(1,231.7)	3.4	1,427.1	3.6	15.9%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	-	-	1,314.8	8.8	-
210	↑9	현대모비스	1,014.2	(956.7)	2.6	1,117.7	2.7	16.8%
273	↓2	삼성SDI	796.3	(751.2)	5.3	797.6	5.0	6.2%
344	↑39	한화	545.3	(514.4)	1.2	631.9	1.7	22.8%
392	↑50	기아	461.2	(435.1)	0.7	548.3	0.8	26.0%
413	↓39	한국전력공사	561.6	(529.8)	1.1	503.6	0.8	-4.9%
415	↓20	SK	516.3	(487.1)	0.5	501.3	0.5	2.9%
482	↓2	삼성전기	417.2	(393.6)	6.0	412.6	6.6	4.8%
529	↓31	포스코	396.7	(374.3)	0.6	363.9	0.7	-2.8%
598	↑1	두산	312.3	(294.6)	2.5	322.0	2.4	9.3%
661	신규	SK이노베이션	-	-	-	292.8	0.5	-
674	↑971	HD현대	91.6	(86.4)	0.2	288.2	0.7	233.5%
689	신규	두산에너빌리티	-	-	-	280.3	2.3	-
741	신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	-	262.2	4.0	-
748	신규	SK텔레콤	-	-	-	259.3	2.1	-
1073	↓171	NXC	193.1	(182.1)	5.9	163.1	4.8	-10.5%
1080	↑707	삼성물산	83.6	(78.8)	0.3	160.8	0.5	104.0%
1086	↑23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23.9	(116.9)	2.0	159.8	2.5	36.7%
1090	↓90	HL만도	171.9	(162.1)	3.1	159.4	2.7	-1.7%
1155	↓69	LX세미콘	155.9	(147.1)	9.9	147.3	11.0	0.1%
1266	↓6	KCC	131.7	(124.3)	2.6	131.0	3.0	5.4%
1268	↓40	한온시스템	136.0	(128.3)	2.1	130.6	1.9	1.8%
1284	↑44	한미약품	122.8	(115.8)	12.5	127.6	12.2	10.1%
1299	↓210	녹십자홀딩스	155.6	(146.8)	10.1	126.0	8.7	-14.2%
1312	↓8	대웅	125.7	(118.6)	10.0	123.9	9.7	4.5%
1347	신규	대웅제약	-	-	-	120.4	12.5	-
1367	신규	HD현대인프라코어	-	-	-	118.4	3.6	-
1382	↑52	유한양행	109.3	(103.1)	8.3	116.2	8.9	12.7%
1388	↑19	원익IPS	112.8	(106.4)	15.0	115.5	23.8	8.6%
1409	↑200	셀트리온	94.7	(89.3)	5.6	113.1	7.4	26.6%
1562	↓250	종근당	124.7	(117.6)	11.3	98.4	8.4	-16.3%
1572	↓315	현대건설	132.1	(124.7)	0.8	97.4	0.5	-21.9%
1889	↓162	일동홀딩스	86.9	(81.9)	17.3	75.8	16.9	-7.5%
1931	신규	아모레퍼시픽	-	-	-	73.2	2.6	-
1990	↑443	LS	62.9	(59.3)	0.5	68.5	0.4	15.4%

주1) 괄호 값은 '23년 환율을 적용한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약도 = 순매출(Net Sales) 대비 R&D 투자 비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19〉 최근 10년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순위 현황(2014-2023년)

(단위: 위)

기업명	산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삼성전자	ICT 하드웨어	2	2	4	1	2	4	4	6	7	7
SK하이닉스	ICT 하드웨어	98	85	83	67	63	64	62	57	59	42
LG전자	기타	46	48	50	53	57	55	61	65	72	80
현대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	79	83	77	73	69	67	67	79	91	81
LG화학	산업재	-	-	227	198	191	194	190	196	177	166
LG디스플레이	기타	-	-	-	-	-	-	-	-	-	180
현대모비스	자동차 및 부품	276	260	256	220	224	219	219	227	219	210
삼성SDI	ICT 하드웨어	1560	261	281	293	291	277	265	287	271	273
한화	산업재	819	537	329	301	381	327	322	450	383	344
기아	자동차 및 부품	149	124	120	118	132	132	140	396	442	392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259	246	221	223	237	258	277	337	374	413
SK	화학	514	-	-	-	-	1756	1547	1913	395	415
삼성전기	ICT 하드웨어	250	339	370	366	322	336	376	402	480	482
포스코	산업재	264	303	334	312	321	383	407	513	498	529
두산	산업재	-	-	337	302	314	318	370	578	599	598
SK이노베이션	에너지	755	721	840	485	631	729	693	614	-	661
HD현대	산업재	416	548	632	1315	1741	1612	1678	1953	1645	674
두산에너빌리티	산업재	-	-	-	-	-	-	-	-	-	68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및 방위	590	615	714	710	864	679	711	837	-	741
SK텔레콤	ICT 소프트웨어	345	421	593	523	578	678	700	757	-	748
NXC	ICT 소프트웨어	1443	1396	1316	1297	1208	977	914	949	902	1073
삼성물산	ICT 하드웨어	771	-	984	1279	1532	1498	1514	1672	1787	108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동차 및 부품	749	739	800	829	857	943	1064	1251	1318	1086
HL만도	자동차 및 부품	-	1043	1018	977	998	872	985	1069	1000	1090
LX세미콘	ICT 하드웨어	-	2003	1763	1348	1429	1413	1280	1176	1086	1155
KCC	건설 및 자재	1262	1351	1366	1405	1508	1634	1065	1191	1260	1266
한온시스템	자동차 및 부품	661	642	791	799	832	832	946	1187	1228	1268
한미약품	보건·의료	772	711	899	859	838	816	801	1296	1328	1284
녹십자홀딩스	보건·의료	1200	1078	943	941	969	1094	1051	1264	1089	1299
대웅	보건·의료	-	1942	-	-	-	-	-	-	1304	1312
대웅제약	보건·의료	-	-	1150	1116	1099	1117	1110	1200	-	1347
HD현대인프라코어	자동차 및 부품	-	-	-	-	-	647	677	1283	-	1367
유한양행	보건·의료	1968	2002	1761	1449	1163	1133	921	1336	1434	1382
원익IPS	ICT 하드웨어	-	-	-	1627	1596	1324	1128	1338	1407	1388
셀트리온	보건·의료	1270	-	1564	1757	1342	1281	984	1670	1609	1409
종근당	보건·의료	1769	1529	1488	1544	1205	1182	1113	1278	1312	1562
현대건설	건설 및 자재	1400	1453	1234	1266	1185	736	940	1071	1257	1572
일동홀딩스	보건·의료	-	-	-	-	-	-	1920	1719	1727	1889
아모레퍼시픽	기타	1456	1485	1361	1530	1755	1962	-	-	-	1931
LS	산업재	1691	1936	-	1786	1927	-	1878	-	-	1990
창신INC	기타	-	1945	1751	1720	1957	-	-	-	-	-

(단위: 위)

기업명	산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J	기타	1778	1585	1608	1680	–	–	–	–	–	–
CJ제일제당	기타	1583	1640	1787	1750	1841	1619	–	–	–	–
DB하이텍	화학	1794	1710	1733	1761	–	–	–	–	–	–
동아에스티	보건·의료	1356	1537	1457	1358	1584	1768	1823	–	–	–
두산밥캣	금융	–	–	1240	1390	1282	–	–	–	–	–
이래AMS	자동차 및 부품	–	1939	–	–	–	–	–	–	–	–
GS칼텍스	에너지	1849	–	–	–	–	–	–	–	–	–
GS건설	건설 및 자재	1734	–	–	–	–	–	–	–	–	–
한화솔루션	화학	1402	1451	1814	1776	–	–	1245	1383	–	–
한화오션	자동차 및 부품	1060	1254	1641	–	1796	1875	1913	–	–	–
한화큐셀	ICT 하드웨어	–	1551	1610	–	–	–	–	–	–	–
휴맥스	ICT 하드웨어	1306	1275	1299	1428	1600	–	–	–	–	–
효성	산업재	828	901	991	1000	–	–	–	–	–	–
현대트랜시스	자동차 및 부품	–	–	–	–	–	–	–	–	1745	–
일동제약	보건·의료	–	–	–	–	–	–	–	1956	–	–
주성엔지니어링	ICT 하드웨어	–	–	1946	1960	–	–	–	–	–	–
코오롱그룹	산업재	1137	1226	1260	1186	1419	1468	1471	1793	1927	–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 및 방위	–	–	–	797	766	1058	488	1289	1244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1534	1672	1912	1737	1863	1920	–	–	–	–
KT	ICT 소프트웨어	283	563	636	349	632	769	918	1008	1006	–
KT&G	기타	1982	–	–	–	–	–	–	–	–	–
경신	자동차 및 부품	–	1883	1685	1553	1553	1732	–	–	–	–
LG	ICT 하드웨어	1440	1925	–	–	–	–	–	–	–	–
LG생명과학	보건·의료	1415	1253	–	–	–	–	–	–	–	–
LG유플러스	기타	1571	1504	1759	1820	1616	–	1835	–	1628	–
롯데케미칼	화학	1852	1629	1538	1202	1350	1596	1761	1942	1945	–
LS ELECTRIC	ICT 하드웨어	874	1651	1014	1011	1084	1204	1159	1491	–	–
엔씨소프트	기타	1216	1045	671	498	547	568	489	554	544	–
넥센타이어	자동차 및 부품	1361	1429	1602	1617	1649	1501	1596	–	–	–
OCI	화학	1845	–	–	–	–	–	–	–	–	–
팬택	ICT 하드웨어	1220	1302	–	–	–	–	–	–	–	–
세종공업	자동차 및 부품	1994	–	–	–	–	–	–	–	–	–
서울반도체	ICT 하드웨어	1077	1568	1228	1096	1108	1406	1712	1940	1938	–
SK케미칼	화학	1120	1482	1578	1764	1834	1880	–	–	1987	–
SKC	산업재	1963	1866	1926	–	–	–	–	–	–	–
태영건설	건설 및 자재	1979	–	–	–	–	–	–	–	–	–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ICT 소프트웨어	1582	–	–	–	–	–	–	–	–	–
유라	ICT 하드웨어	1438	1463	–	–	–	–	–	–	–	–

주) 산업 분류는 ICB(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를 따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저자소개|

정하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E-mail : summerj@kistep.re.kr 전화 : 043-750-2656

※ 본 KISTEP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64 (25.01.09.)	글로벌 주요기관 전망 2025년 유망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	최창택 (KISTEP)	혁신정책
165 (25.01.13.)	민·군 레이다 응용기술	김상준·문성훈 (KISTEP)	기술동향
166 (25.01.14.)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아람·여준석 (KISTEP)	혁신정책
– (25.01.14.)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황지호·이경재·최대승 김다은·박서안 (KISTEP)	이슈페이퍼 (제372호)
167 (25.01.2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홍정석(KISTEP) 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정책
168 (25.02.12.)	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의 부상을 중심으로 -	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169 (25.02.13.)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송창현 (KISTEP)	혁신정책
– (25.02.17.)	국내 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 졸업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이현경·서현정 (KISTEP)	이슈페이퍼 (제373호)
170 (25.02.19.)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① -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이슈 -	정의진·신동평 (KISTEP)	미래예측
171 (25.02.28.)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이재민·문태석·강현규 (KISTEP)	혁신정책
172 (25.03.05.)	일본 연구중심대학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국제탁월연구대학을 중심으로 -	김태윤·이원홍 (KISTEP)	혁신정책
– (25.03.07.)	출연연 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 현황 및 시사점	신우영·박창대·정민우 (KISTEP)	이슈페이퍼 (제374호)
173 (25.03.24.)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개발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윤희정 (KISTEP)	혁신정책
174 (25.03.25.)	2023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홍기현·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175 (25.03.27.)	글로벌 AI 패권 경쟁 : 중국 동향과 시사점	서행아·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76 (25.04.04.)	미국 과학기술혁신 목표와 우선순위 - 트럼프 대통령이 OSTP에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 -	송원아·정여진 (KISTEP)	혁신정책
177 (25.04.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임상우 (KISTEP)	혁신정책
178 (25.04.25.)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안류빈·김선교 (KISTEP)	혁신정책
179 (25.04.28.)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이서엘·전은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180 (25.04.29.)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	정하선 (KISTEP)	통계분석